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66호



스승님 말씀

‘지구 우주선’을 강력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돕자

채식 시대

우주 여행과 채식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세상의 긍정적인 진보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큰 희망, BMW 수소 자동차

동물의 유정 세계

종족을 뛰어넘는 사랑의 세계

‘지구 우주선’을 강력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돕자

청하이 무상사/ 1989. 11. 3. 미국 뉴욕 콜롬비아 대학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102A



우리 행성은 매우 아름다운 하나의 ‘우주선’입니다. 공중에 수많은 중생을 싣고 돌고 있으므로 우주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많은 안락함과 기쁨을 주고 무한한 보물을 선사하며 갖가지 방식으로 우리 삶을 지탱해 줍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이 대지 어머니에 대한 자그마한 의무가 있습니다. 지구가 이런 강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지구도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쾌적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특정한 계율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과 다른 유형·무형의 존재들을 해치며 살아갑니다. 무형의 존재에 대해 믿지 않는다면, 적어도 우리 자신의 종족인 인류와 지구의 또 다른 주민인 동물의 존재에 대해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채식을 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었는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만물에는 에너지가 있고 모든 행위는 기록되어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폭력적인 상태를 야기한다면 그 폭력적인 기운은 우리, 또는 우리 행성을 에워싸고 있다가 재해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째서 이렇게 전쟁이 많은 걸까?”, “왜 이렇게 우리 지구에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 하고 의문을 갖는데, 사실 아무 원인도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는 법입니다. 성경에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만물의 본질이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신체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손을 다치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지요. 단지 이 우주라는 몸이 너무나 광대하고 또 우리가 이 거대한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주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천안이나 지혜안을 계발한다면 우리가 정말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부처는 이런 지혜안을 계발했기에 우주의 법칙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삶을 보다 즐겁고 편안하고 우리 취향에 맞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상으로부터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야 할 행동 방침을 가져와 제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율 또는 신의 율법이라고 칭하는 이런 규칙들은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계율을 지키면 이웃에게 친절하고 적을 사랑하게 되어 세상은 평화롭고 살기 좋게 되며 훨씬 더 오래 존속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면 우리 삶에도 영향을 주어 우리 또한 매우 평화롭게 됩니다. 우리가 망가졌거나 상태가 안 좋은 집에 산다면 우리 건강과 편안함도 영향을 받게 되듯이 혼돈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면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돕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

동수들에게 보내신 스승님의 편지

(원문 영어)

2006년 4월 16일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신의 은총으로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성인의 경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낮은 종류의 습관으로 스스로를 '퇴보시킨다면', 축적된 업장이 지금도 여러분을 낮은 경지로 끌어 내릴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업장의 신에 의해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은 지금도 업장의 세계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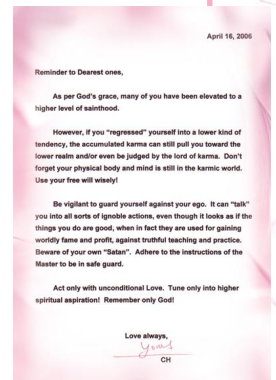
방심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에고로부터 지키십시오. 에고는 온갖 종류의 열등한 행동을 하도록 여러분을 '설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좋아 보인다 해도 그것이 실제로는 진정한 가르침과 수행에 반해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기 자신의 '사탄'에 주의하십시오. 안전한 보호 안에 있으려면 스승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행동하십시오. 더 높은 영적인 소망에만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신만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사랑합니다.

Yours
CH



CONTENTS

차례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66호

출판일자 : 황금시대 3년(2006년) 8월 5일

설립년도 : 1990년 4월 1일

발행처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Hsieh Hsin-lin

인쇄처 :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42) 543-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kpt@yahoo.co.kr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간체 및 번체, 영어, 아올락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몽골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앞표지 안 스승님 말씀
'지구 우주선'을 강력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돕자

3 동수들에게 보내신 스승님의 편지

5 다채로운 이벤트

뉴질랜드/ 포모사/ 대한민국

9 단신

10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공화국/ 미국/ 미국에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다/ 캐나다/ 페루/ 대한민국/ 필리핀

24 이야기 세상

관음법문을 통해 증명된 신의 사랑

25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발자국의 주인

26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만든다

28 전세계 우수 정책 시리즈

모나코/ 브라질/ 유럽의 국경 개방/ 세계는 지금 흡연 추방 중

33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일

지구를 푸르게 만드는 백만장자: 요한 엘리야쉬

34 예술과 영성

브로드웨이 배우에서 관음법문 수행자로: 마리안 헤일리-모스의 다채로운 인생 여정/ 예술 공연을 통해 확장되는 신의 품성

37 골라 뽑은 수행 문답

스승님은 각 개인의 필요에 따라 조언하신다/ 직업의 본질은 직위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지내면서 신의 인도에 따라라

41 관음 웹사이트

44 동물의 유정 세계

동물의 사랑/ 종족을 뛰어넘는 사랑의 세계

47 사제시간의 편지

스승에 대한 믿음이 기적 같은 결과를 낳다

48 수행의 길목에서

티베트의 승려가 스승님에게로 인도해 주다/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50 황금시대의 과학기술

인류를 이롭게 하는 새로운 다이아몬드 응용법/ 로봇이 인명 구조 활동에 나서다/ 세상의 긍정적인 진보: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큰 희망, BMW 수소 자동차

54 사랑의 실천

미국/ 포모사/ 2006년 1월부터 2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지출 일람표

59 스승님의 농담

침묵이 금이다/ 정보가 틀렸어

60 양서 입문

우주적 대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별을 찾아 떠난 여행』

62 채식 시대

우주 여행과 채식/ 전세계 엘리트 채식주의자

70 매체 보도

『르 파리지엔』이 채식 관련 기사를 싣다

71 전세계 연락처

뒤표지 안 무상 예술

천상의 보석 '완전한 자'에서 얻은 깨달음

뒤표지 영혼의 교양

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책: 신과 인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통한 고찰

뉴질랜드 소식

멋진 캠프 체험

오클랜드 뉴스그룹

[오클랜드] 황금시대 3년(2006년) 5월 11일과 12일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와 해밀턴 센터는 롱베이(Long Bay)에 위치한 해양 교육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삶과 영성 행복 캠프’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80명이 넘는 동수들과 손님들이 참여했다.

이번 캠프에는 모두가 좋아하는 해변 옥외 활동과 일상생활을 해쳐나가는 데 영적·물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실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완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스승님의 가르침과 채식의 개념을 전해 참석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캠프에서는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도 상영되었으며, 동수들은 인상적인 영상과 함께 ‘영성과 과학’, ‘삶과 수행’에 관해 소개했다.

채식을 널리 알리라는 스승님의 애정 어린 당부에 따라 오클랜드 동수들은 ‘해리 빅터 제6권-음식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연극 공연을 했다. 이 연극은 재미있는 대화를 통해 채식의 유익함과 인간이 채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청중들에게 전달했다. 사형사자들이 감독, 배우, 무대 기술, 음악, 음향 효과, 안무, 의상 디자인 등을 맡아 꾸민 이 멋진 연극은 관중들로부터 많은 웃음과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이 밖에 오클랜드 센터 주방 팀은 채식을 홍보하기 위해 풍성하고 다채로운 채식 연회를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거의 사방을 에워싸다시피 하고 있는 멋진 바다 정경을 바라보며 캠프 운동장에 마련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겼다. 멋진 풍경과 맛있는 요리, 즐거운 분위기로 인해 천국이 만들어진 듯했고, 모두들 신의 궁전에 초대된 귀빈이 된 것처럼 느꼈다. 스승님의 멋진 안배에 동수들과 손님들 모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주방 팀의 한 사저는 첫날 저녁에 식사 준비를 하다가 실수로 화상을 입었다. 끓고 있던 냄비를 엮어트리면서 양손을 심하게 데웠던 것이다.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했지만 일정에 영향을 줄까 봐 걱정된 그녀는 고통을 무시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일을 계속했다. 행사를 다 마친 그녀는 그제서야 양손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로 다음날 직장에 가야 할 것을 걱정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른손이 흉터 하나 없이 말끔하게 나아 있었어요. 왼손에는 상처가 조금 남아 있긴 했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요. 그 상처는 마치 내가 데였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있는 것 같았어요. 약사인 제가 봤을 때 이건 의학적인 기적이예요!” 하고 사저는 말했다.

동수들은 또 참가자들과 함께 스승님의 노래 ‘Go! Go! Go!’에 맞춰 에어로빅을 하기도 했다. 경쾌하고 발랄한 리듬 덕분에 참가자들은 신과 함께 춤을 추는 듯했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



운 삶을 영위하는 관음 수행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손님들이 노래에 익숙해지자 두 사형의 기타 반주로 모든 이들이 즐겁게 이 노래를 불렀다. 이 영감이 넘치는 노래는 높이 고양된 천상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외에도 재미있는 게임과 웃긴 농담, 동수들이 안무한 아름다운 춤 등 모든 프로그램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이틀 동안 계속된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신의 사랑의 정원’이었다. 스승님의 감로법어와 예술 작품이 어우러진 이야기와 춤을 보여 준 이 프로그램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행사가 끝난 후 참가

자들은 스승님의 감로법어와 예술 작품이 인쇄된 예쁜 선물 세트를 받았다.

캠프 기간 동안 진행된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다들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에 빠져들었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좀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방편법을 수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동수들은 스승님의 무한한 축복과 무소부재한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행사에 참가한 동수들은 모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과정을 통해 자비심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포모사 소식

진달래 축제에서 신의 메시지를 전하다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타이베이] 국립대만대학(NTU)의 ‘광음회’ 회원들은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 11일과 12일에 열린 NTU 진달래 축제 기간 동안 부스를 마련해 스승님의 가르침과 ‘대안적인 삶’ 메시지를 나누었다. 이번 행사에는 타이베이 인근 대학교에서 온 동수들도 참여했다.

학생 동수들은 스승님의 출판물을 전시하는 외에 맛있고 다양한 채식 음식과 영적이고도 재미있는 게임을 준비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몇몇 동수들은 귀여운 캐릭터 복장을 하고 재미있는 볼거리를 연출하여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한편 인류에게 동물을 사랑하고 그들과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행사 기간 동안 채식 음식은 인기가 많아서 많은 이들이 몰려왔다. 다른 부스에서 온 학생들도 채식 음식을 먹어 보더니 너무도 맛있어하며 바로 친구들을 불러 맛보게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학생 동수들만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동수들도 많이 참여해 채식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이들은 나이는 어리지만 그 기상은 매우 높았으며 이들의 공연도

아주 멋졌다.

행사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대안적인 삶’ 전단지 받고 자세히 읽는 모습을 보고 동수들은 매우 흐뭇했으며, 전단지를 나눠 주고 채식 음식을 맛보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채식이 건강에 이롭고 영양 많고 맛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었다.




건강 세미나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 16일 저녁, 국립대만대학교 광음회 소속 동수들은 ‘심신과 영혼의 조화를 통해 자아를 찾는 새로운 방법’과 ‘보다 고상하고 지혜로운 생활 방식의 구성 요소’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에는 세계 중화 함암 링크*의 설립자인 메이상양 박사와 우진화법의 창시자인 데이비드 우 화백, 그리고 PDP 성공적 지도자 연구소의 전문 강사인 요원야 여사가 주요 연사를 맡았다. 연사들은 건강을 유지하면서 예술을 창작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각자의 관점을 발표하는 한편 심신의 관점에서 본 ‘대안적인 삶’의 중요성에 대해 청중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청중들은 각기 다른 분야의 이 세 전문가들의 훌륭한 주제 연설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또한 행사장에서 제공한, 풍미와 모양새가 뛰어난 채식 요리에도 매료되었다. 참석자들은 연사들 주변에서 세미나 주



제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고 싶어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그 자리에서 방편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등 심신과 영혼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자아를 창조하는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싶어했다.

이번 행사는 건강에 대한 의학적 개념에다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한 예술적·영적인 사고를 접목시킴으로써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희망과 빛으로 충만한 황금시대에 걸맞은 생활 방식을 제시했다. 

* ‘세계 중화 함암 링크’는 메이상양 박사가 주도하는 자원봉사대로서, 사회 대중에게 채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전달하고 있다.

‘건강 채식 모임’을 설립해 신주 산업기술연구원에서 채식을 장려하다

신주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신주] ‘동물 사랑’과 ‘평생 채식’의 개념을 알리라는 스승님의 당부에 따라 신주 산업기술연구원(Industrial Technological Research Institute, ITRI)에서 일하는 동수들은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 23일에 ‘건강 채식 모임’을 만들었다. 2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이 모임에 가입해 연구소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ITRI는 포모사 전자정보산업의 선두 주자로 현재 6천 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의 연구원들이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포모

사 내 세계 수준의 많은 기술회사들이 ITRI에 의해 계획되고 설립되었고, 과학기술산업 분야의 많은 지도자들이 이곳 출신이기도 하다. 스승님의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를 연구원의 모든 동료들에게 전하고자 채식 모임을 만든 동수들은 채식 요리 시식회의 형태로 모임 창립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 창립 행사에 관한 소식은 연구원 내 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리기도 하고 포스터를 붙이기도 했는데,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200여 명의 직원들이 모임에 가입했다.

3월 23일 점심때 개최된 창립 행사에서 동수들은



채식의 개념과 채식의 이로움을 소개한 후 무료 채식 시식회를 진행했다. 신주 센터에서 이번 행사를 위해 제공한 30여 가지의 중식·양식 요리는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몇몇 참석자들은 외부 식당에서 주문해 온 음식인 줄 알고 다음에 주문해 먹고자 동수들에게 그 '식당'의 연락처를 묻기도 했다. 많은 참석자들이 채식 요리법에 관심을 보였으며, 채식이 이렇게 맛있고 다양하며 몸에 좋다는 것을 알고 놀라워하면서 앞으로 채식으로 바꾸려는 사람들도 많았다. 동수들은 행사장에 스승님의 창작 음악을 틀어놓는 한편 건강 음식에 대한 지침을 소개하고 스승님의 예술 부채와 만세등도 전시했다.

기계공학 연구소의 장광 소장은 '건강 채식 모임'을 통해 ITRI의 연구원들이 아인슈타인처럼 예리한 관찰력을 지니고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기를 희망했다. 20년 넘게 채식을 하고 있는 재료실험 연구소의 기획실장이자 지식서비스팀의 부팀장인 시예정 씨는 이 모임을 통해 채식이 소개되게 된 것에 매우 기뻐했다. 행정처의 장페이준 양은 수년 동안 동수들과 함께 일하면서 조금씩 그 영향을 받아 몸에 좋은 채식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얘기했다. 또한 재료 실험연구소의 황유원 양은 이날 제공된 채식 요리가 아주 다채롭고 맛있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건강 채식 모임'이 설립됨에 따라 ITRI 직원들



은 '동물 사랑'과 '건강 채식'의 개념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으며, 채식은 단조롭고 변화가 없다는 통념도 깨게 되었다. 지속적인 채식 홍보를 통해 이곳의 최첨단 기술 전문가들이 뉴턴이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의 모범을 따라 이 세상에 더욱더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대한민국 소식

생명사랑: 비디오 강연회와 채식 캠페인

서울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원주]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 25일, 한국 동수들은 원주 가톨릭 센터에서 관음법문을 소개하는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부산, 대전, 서울 등지의 동수들이 원주 동수들과 함께 약 1주일간 원주 시내 전역에 포스터를 붙이고 '대단적인 삶' 전단지들을 배포했다.

행사 당일, 강연회가 열린 100석 규모의 가톨릭 센터 강당은 많은 구도자들로 가득 찼다. 참석자들은 시종일관 진지하게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시청했고, 매우 고양된 분위기였다. 한 할머니는 비디오를 시청하는 동안 느낀 스승님의 엄청난 힘에 감동하여 입문하고 싶어했지만 고령으로 인해 방법법밖에 배울

수 없어 매우 아쉬워했다. 강연회가 끝난 뒤 대략 20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방편법을 배웠다. 참석자들은 영적인 선물 외에도 동수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채식 음식과 음료를 선물로 받고 매우 기뻐했다.

강연 전날과 당일, 동수들은 시내 중앙 시장에서 강연회와 채식음식을 함께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채식 요리 시식회를 열고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삶’ 전단지들을 나눠 주었다. ‘생명사랑 1천만 서명 캠페인’* 또한 시작되었는데 동수들은 대중들의 적극적인 반응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세 시간 만에 300명이 자발적으로 서명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채식에 하고 있다면서 이런 채식 캠페인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얘기했고, 채식 ‘고기’의 맛이 뛰어난 것에 깜짝 놀



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채식에 대해 개방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 ‘생명사랑 1천만 서명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비로운 채식 지구촌 만들기’의 서울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모든 입문자에게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단체에는 입문을 시키는 소위 ‘비밀’ 관음사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관음사자는 먼저 스승의 허가를 받은 후 국외조에서 파견해야 입문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관음사자라고 자칭하더라도 본부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입문 전수에 대한 스승님의 허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스승님의 보호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율을 어기는 가장 엄중한 행위입니다. 그 사람은 가장 큰 업장을 만들고 쌓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입문을 전수받은 사람들에 있어 그 입문은 아무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문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마장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스승님의 자비의 메시지 ‘대안적인 삶’을 나누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

동물과 인간 사이에서 교리에 교리를 물고 이어지는 전염병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전세계에 제시하고자 스승님은 직접 ‘대안적인 삶’이란 제목의 친근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전단지를 디자인하셨다. 스승님은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채식을 하고 살생을 멈춤으로써 전세계적 공동 위기를 극복하고 무수히 많은 동물 친구들을 구하자고 하신다. 또한 스승님은 모든 동수들에게 전세계 곳곳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라고 당부하셨다. 이에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든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 각국에서 진행된 활동 소식들이다.

콩고 민주공화국

스승님의 자비의 메시지가 아프리카에 전해지다

킨샤사 뉴스그룹

스승님의 자비로운 지시에 따라, 콩고 민주공화국 킨샤사 센터의 동수 13명은 센터 주변의 시장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배포했다. 동수들은 각자 배당된 지역에서 전단지를 배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전단지를 받으러 몰려왔다. 주민들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조류 독감의 영향력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수들의 보충 설명을 듣고는 전단지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몇몇 사람들은 이 전단지가 영적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30분도 안 돼서 3천 장의 전단지

가 다 나갔는데 그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단지를 찾았다.

유럽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한 터라 사람들은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육류 판매량도 감소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스승님께서 건강한 식생활을 알리도록 지시하신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





콩고 공화국

진리 나누기 활동이 브라자빌 시민의 환영을 받다

코코우 도지 오피사 사형 (원문 프랑스어)

2006년 3월 19일, 우리는 콩고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콩고 공화국(Republic of Congo, RC)에서 스승님의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인 킌사사 센터의 도움으로 우리는 인쇄된 전단지를 받을 수 있었다.

모든 국민들이 조류 독감에 관한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안적인 생활 방식에 대한 스승님의 제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사람들은 친척들에게 갖다 줄 여분의 전단지를 요청하기도 했고 채식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다. 이에 동수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런 삶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함께 나누었다.

전단지를 나눠 주는 활동을 통해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느끼는 것 외에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킌사사 센터의 도움으로 조만간에 콩고 공화국의 수도인 브라자빌(Brazzaville)에도 센터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진리를 열망하는 구도자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

🌿🌿🌿 캘리포니아 다나 포인트 🌿🌿🌿

고래 축제에서 모든 중생에 대한 사랑을 널리 알리다

로스앤젤레스 보도 팀 (원문 영어)

로스앤젤레스 동수들은 3월 두 주간의 주말에 걸쳐 열리는 제15회 연례 고래 축제에 대비해 즐겁게 준비해 나갔다. 이 행사는 매년 회색고래들이 캘리포니아 해안선을 따라 알래스카에서 멕시코로 이동하는 것

을 경축하기 위해 열리는 대규모 야외 박람회로,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전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동물을 죽이지 않는 동물보호소를 지원하기 위한 '강아지 산책', 해양 생



물에 대해 교육시키는 해양 연구소와 같은 동물 애호 활동들도 함께 열렸기에 더욱더 좋은 기회였다.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 4일과 5일 주말에 앞서 동수들은 음식과 전단지, 부스를 꾸미기 위한 전비용품을 준비했다. 그 전주 내내 비가 내리고 습했는데, 3월 4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아름다운 햇살이 비추어서 마치 신이 동수들에게 미소 짓는 듯했다. 약 15명의 동수들은 6시도 안 된 시각에 행사장에 도착해 생화와 현수막, 바람을 넣은 풍선으로 부스를 꾸미고 스승님의 DVD를 틀어 놓는 한편 파키스탄,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같은 재해 현장에서 펼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재난 구호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시했다.

오전 10시에 박람회가 시작되자마자 행사장은 사람들로 만원을 이루었다. 가족들과 함께 행사장에 온 많은 어린이들은 동수들로부터 풍선을 받고 좋아했으며

부모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받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수들은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전단지를 나눠 주기도 했다. 먹음직스러운 채식 요리법도 미리 인쇄해 전단지와 함께 배포했는데, 사람들은 이 요리법을 매우 좋아했으며 그 중 한 사람은 “이것 참 좋네요. 요리법을 몰라서 채식 요리를 못 해 먹었는데.” 하고 말했다.

몇몇 동수들은 행사장 근처의 발보아 파크(Balboa Park)에 가서 전단지를 나눠 줬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으며, ‘대안적인 삶 단체’로서 이 공원에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전단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전단지에 인쇄된 동물들에 대해서 언급하기까지 했다. 한 남자는 전단지의 돌고래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얘기했다. 또 채식 식품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다. 동수들은 전단지와 함께 ‘무상 주방’ 웹사이트에 있는 요리법을 인쇄해 나눠 주고, 전단지에 나온 웹사이트를 가리키며 그곳을 방문하면 보다 많은 정보와 요리법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이 밖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이름이 새겨진 노란 조끼를 입은 동수들이 조끼를 입지 않은 동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전단지를 나눠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작업 팀에게 조끼를 입도록 하신 스승님의 권고가 정말 타당하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스승님의 명호를 본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서로들 얘기를 나누었다.

이틀간의 행사를 마친 후 동수들 몇 명이 바닥이나 쓰레기통에 버려졌는지 모를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찾아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놀랍게도 버려진 전단지는 한 장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배포된 6천 장의 전단지가 하나도 버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동수들은 신의 일을 하는 데 동참할 수 있었던 이번 기회에 깊이 감사하며 행사장을 떠났다. ✨



산호세 남부 부근까지 전해진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

산호세 뉴스그룹 (원문 영어)



산호세 동수들은 최근 『페니세이버 상업 광고(PennySaver business ads)』에 10만 장 분량의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인쇄해 산호세 각 가정에 배포했다. 또한 지역의 채식 식당에 수백 장의 전단지를 두어 매일 점심과 저녁에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 18일과 19일 주말 기간 동안 동수들은 길로이 아울렛(Giloy Outlet) 주차장에서 차 한 대당 전단지를 한 장씩 나눠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 주 주말에만 8천 장의 전단지가 배포되었다. 토요일에는 쇼핑몰의 경비원이 먼저 호기심을 갖고 순찰차를 몰고 다가와 작업을 하고 있던 사자를 뒤에서 지켜보더니 오후가 되자 우리를 도와 주차된 차 전면 유리창에 전단지를 끼워 놓는 일을 해주었다. 일요일에

는 한 가족이 사저로부터 전단지를 받고선 마치 귀한 선물을 받은 양 크게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전단지를 읽으며 서로 토론을 벌였다.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 다음주인 3월 28일에는 남쪽의 살리나스(Salinas)에 가서 이 고귀한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 동수들은 여러 쇼핑몰의 주차장에서 신속하고도 조용하게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길로이와 마찬가지로 작은 마을인 살리나스의 주민들이 대부분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스페인어와 영어로 된 전단지 두 가지를 같이 준비했다. 이들은 매우 선량하고 단순해서 전단지를 받고 매우 좋아했다. 이 두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전단지를 받아 갔으며 어떤 사람들은 운전하고 가다가 가볍게 경적을 울려 전단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

미국에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다

미국 뉴스그룹 종합 보도 (원문 영어)

스승님이 올해 1월에 ‘대안적인 삶’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이래로 미국과 캐나다의 30개 센터 동수들이 이 활동에 동참해 미국과 푸에르토리코에서 총 300만 장이 넘는 전단지가 배포되었고, 캐나다에서는 약 30만 장이 배포되었다. 동수들은 축제, 박람회, 교통이 혼잡한 거리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중생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을 나누었다. 이 외 수백만 장이 신문과 잡지에 광고로 실려 배포되었다. 일부 센터는 TV나 라디오, 여러 인터넷 공개



미국 내 전단지가 뿌려진 장소들. 황금시대 3년(2006년) 1월부터 미국과 푸에르토리코에 300만 장이 넘는 전단지가 배포되었다.



포럼, 이메일 네트워크를 통해 전단지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약 천만 명에 이르는 미국인들이 스승님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었다.

동수들은 여러 가지 독창적인 방법을 이용해 전단지 내용을 선전했다. 한 사저는 전단지와 ‘채식 과학자’ 명단을 초등학교 수업 자료로 사용했으며, 다른 동수는 식료품 가게에서 채식 물품 설명 자원봉사를 하는 동안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또 한 사형은 자기 차에 마그네틱 복사지로 ‘대안적인 삶’을 붙여 관련 웹사이트를 선전했다.



‘대안적인 삶’이 선전된 차량: 한 사형이 자기 차를 마그네틱 복사지로 장식한 모습.

현장 소식

오스틴

적극적인 한 사형은 고속도로 교차로에 서서 3시간 동안 전단지 3백여 장을 배포했다. 사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차들이 신호에 걸렸을 때 운전자에게 다가가 전단지를 보여 줍니다. 그럼 운전자들은 전단

지를 읽고 받을 건지 결정하는데, 어찌 됐건 전단지 내용을 읽게 되는 거지요. 내가 돌린 전단지는 수백장에 불과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단지를 읽었습니다.”

플로리다

동수 1: “직장 게시판에 전단지 한 장을 꽂아 두었는데, 다음날 출근해서 보니 그 전단지가 주 간호사 대기실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며칠 동안 그 테이블에 계속 있었는데, 그동안 간호사들이 전단지를 복사해 갔어요.”

동수 2: “‘천상의 예언(Celestine Prophecy)’이라는 새 영화가 개봉될 예정인데, 먼저 교회와 영성 단체에서 시사회를 했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나눠 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시사회에 두 번이나 참석했어요.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신성한 힘으로 충만한 영성의 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걸 깊이 체감해서인지 동물 친구들에 대한 사랑을 담은 전단지를 받고선 매우 좋아했습니다. 첫 시사회 때 여자 사회자에게 전단지를 배포해도 되는지 물었더니 남편이 거의 채식을 한다는 그녀는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있었던 두 번째 시사회에서는 완전 채식을 하는 매표소의 여직원이 표를 산 사람들에게 마치 프로그램의 일부인 양 전단지를 집어가게 했습니다.”



버지니아

『워싱턴 포스트 익스프레스(The Washington Post Express)』에 전단지 내용을 광고한 후 워싱턴에서 일하는 한 동수는 직장 동료들로부터 지하철역에서 받은 그 신문을 통해 우리 협회의 광고를 봤는데 아주 좋은 정보였다는 말을 들었다.

동수들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는 동안 몇몇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 이 전단지의 정보가 정말 유용하다고 말해 주었다. 한 부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에게 자신들이 3, 40년째 채식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 단체에 대해 궁금해했다. 이에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웹사이트 주소와 연락처를 주었으며, 나중에 그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을 때는 4월에 열릴 비디오 강연회 소식을 알려 주었다.

한 동수가 페어팩스(Fairfax) 지역에서 전단지를 돌

리고 있을 때 인도 국적의 한 여성이 우리 전단지를 마음에 들어하며 이메일로 전단지를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힌두교도인 그녀는 이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채식 관련 책자를 나눠 준 적이 있긴 했지만 우리 전단지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해 이를 많이 인쇄해 다른 이들에게 주고 싶어했다.

2주 주말 동안 우리는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안 박물관(The Smithsonian Museums)에서 여행객들에게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워싱턴 D.C.는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로 미국 전역과 전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우리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인기가 높은 벚꽃 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관광 명소에서 정기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기로 했다. ✨

캐나다

전단지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사저는 원래 매니토바(Manitoba)의 위니펙(Winnipeg)에 있는 여동생을 만나러 갈 예정이었으나 스승님이 전세계 곳곳에 전단지 소식을 알리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바로 일정을 변경해 추가 요금도 거의 없이 캐나다 동부 해안으로 계속 여행해 노바스코샤(Nova Scotia) 주 핼리팩스(Halifax)까지 다녀오기로 했다. 그녀는 세계 여러 대륙을 다녀 봤지만 캐나다 동부 해안 쪽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매우 흥미롭게 생각했다.

위니펙에 도착한 사저는 놀랍고도 기분 좋은 일을 겪었다. 상점, 커피숍, 대학교 등지에 갈 때마다 만난 젊은이들이 완전 채식을 하고 있거나 부모가 채식을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매니토바 대학교의 한 학생

은 “당신이 이 일을 하시는 걸 보니 정말 기쁩니다. 저도 완전 채식을 하거든요.” 하고 말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전단지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곳은 핼리팩스였다. 이곳을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서부 해안의 밴쿠버가 동부 해안 지역보다 영적으로 더 진보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와 보니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게 되었다. 이곳 사람들은 매우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로 전단지를 받아 갔으며, 그녀가 들어간 가게들도 거의 대부분 흔쾌히 전단지를 받았다. 특히 20세 전후의 많은 젊은이들이 채식 또는 유제품도 먹지 않는 비건이라고 얘기했다. 전체적인 느낌으로 봐서 이 도시는 완전히 고양돼 있었다. 그녀는 한 예술



대학에 가서 전단지를 게시판에 붙일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마침 그날 학교가 문을 닫아서 정문에는 수위만 앉아 있었다. 사저는 반쯤은 거절당할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싶어 수위에게 전단지를 두고 가도 되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그는 전단지를 보더니 당연히 게시해 주겠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 교내 동물 보호 지역에 전단지를 두고 가라고 얘기해 주었다.

또 한번은 사저가 자기 개에게 줄 장난감을 사려고 애완동물 가게에 들렀다. 보통 애완동물 가게는 육식 제품을 많이 팔기 때문에 그들이 '대안적인 삶' 전단지에 관심을 가질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채식 주의자인 주인은 매우 기뻐하며 전단지를 받았다. 그녀는 개 탁아소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개들에게 채식 간식만 준다고 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명상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자 여주인은 기쁜 마음으로 견본책을 받았다.

사저는 헬리팩스에 머무는 동안 많은 전단지를 나눠 주는 한편 영성 서점 위주로 견본책자를 비치하기도

도 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의 체류였지만 성과는 매우 만족스러웠으며, 기회만 있으면 다시 오고 싶을 정도였다.

사저는 현재 '전단지 배포 산책'을 나갈 때면 자신의 개도 데리고 나가 집집마다 전단지를 돌리고 있다. 그녀의 개는 이 일이 매우 훌륭한 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광역 밴쿠버(Greater Vancouver) 지역에도 행복한 일화들이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나 형제자매, 또는 직장 상사가 채식을 한다고 얘기해 주었다. 한 사저가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던 중 지나가던 남녀 한 쌍에게 전단지를 건네자 여자가 "됐어요." 하고 거절했다. 하지만 전단지에 시선을 빼앗긴 남자는 기분 좋게 전단지를 받아 갖고 두 사람은 주의 깊게 전단지를 읽었다. 많은 사람들이 전단지를 받아 간 후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 같았다.

사저의 개를 포함해 우리는 모두 이 전단지 배포 작업을 즐거워한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

페루

사랑의 씨앗이 페루 남부와 볼리비아에 뿌려지다

홀리오 카데나스 펠리짜리 사형/ 페루 아레키파 (원문 스페인어)



내가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배포하기 위해 방문한 첫 번째 도시는 페루 남부의 타크나(Tacna)였다. 타크나에 도착하기 전 내가 탄 버스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기사와 조수가 차를 고쳐서 다행히 별다른 불편 없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 나는 타크나의 주요 도로와

에스타탈 드 타크나(Estatal de Tacna) 대학, 프리바다(Privada) 대학교에서 5천 장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해가 저물자 나는 노점에서 과일을 파는 부부에게서 약간의 포도와 무화과를 샀다. 그 남편은 내게 전단지를 달라고 하며 어디에 쓰는 것인지 묻고는 전단



지를 받아서 주머니에 쑤셔넣었다. 덕분에 전단지는 완전히 구겨져 버렸다. 나는 그의 손을 보고 그가 막 노동을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내게 자신이 아레키파의 아름다운 계곡 마제스(Majes)에서 왔으며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말했다. 나와 몇 마디 말을 주고받은 후, 그는 갑자기 반짝거리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전단지를 좀더 주세요. 사람들에게 나눠 줄게요.” 하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전단지를 주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중요하고 귀중한 보물을 주듯이 전단지를 나눠 주기 시작했다. 심지어 안 받으려는 사람도 끈질기게 설득하기까지 했다. 나는 글루텐이나 두부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발적으로 스승님의 일을 하는 그의 훌륭한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

또 타크나의 주요 광장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을 때는 한 남자가 여러 번 나를 불러 전단지에 대해 물었다. 전단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그는 큰 관심을 보였고 우리는 영적인 주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역시 자청해서 전단지를 달라고 하더니 행인들을 불러 이 전단지는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어서 와서 이 좋은 소식을 얻어 가세요.” 하고 말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던 중 그는 예전에 새벽이 오기 전 기도를 하곤 했다면 새벽 3시경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다고 얘기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대화를 마친 후, 나와 나눴던 짧은 얘기를 통해 이전에 갖고 있었던 많은 의문점을 풀었다는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마

음이 뿌듯했다. 나는 그가 계율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특히 ‘우리가 신의 자녀이기에 신이 창조하신 동물을 죽인다면 결코 선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개념을 매우 쉽게 이해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스승님의 사진을 보여 주면서 우리 역시 새벽에 명상하며 영적 진보를 위해 요계를 지킨다고 알려 주었다. 그는 우리 명상법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물었다. 나는 그 스스로 우리 법문이 자신이 바라던 것임을 느꼈다는 것을 알아채고선 원한다면 방법법을 전수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우리는 그의 집과 꽤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처 성당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나는 방법법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주의 사항을 설명해 준 후 같이 명상하기 시작했다. 명상 시간이 반쯤 지났을 때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소음과 여러 가지 방해들로 인해 나는 그를 그곳으로 데리고 온 내가 어리석게 느껴졌다. 하지만 놀랍게도, 명상이 끝나고 체험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내면의 비전을 통해 스승님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성가대의 노랫소리와 우리 의자 뒤에서 어린 아이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의자를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냐고 묻자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당신이 여기에 집중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을 뿐인데요.” 성당을 나오면서 나는 이 사람을 만난 것에 정말 행복했으며, 우리의 이 우연한 만남이 신이 사전에 정해 놓으신 안배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

🌿🌿🌿 페루 모케과 🌿🌿🌿

다음으로 방문한 도시는 칠레의 아리카(Arica)였다. 하지만 이 도시에서는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려면 전단지의 종류에 상관없이 많은 제약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원래 아리카에서 5천 장을 배포하려 했었기 때문에 나

는 타크나와 아레키파 사이에 있는 모케과(Moquegua)로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곤 이 작은 도시의 주요 광장과 주요 대로, 골목에서 전단지 2천 5백 장을 배포했다. 사실 이 도시에는 주요 대로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온갖 사람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전단지를 받은 사람들 중 20세 정도로 보이는 한 젊은 아가씨는 길을 걸으며 전단지를 읽다가 반 블록쯤에서 다시 되돌아왔다. 전단지의 내용에 흥분을 금치 못한 그녀는 모케과 지역 사람들은 육식을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채식주의를 지지하는 이 일이 사람들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에 육식을 포기하려 시도한 적이 있었다던 그녀는 아마도 이번에는 전단지의 도움으로 성공했을 것이다. 전단지에 언급된 채식 제품 중 하나인 밀 글루텐이 페루에서는 낯선 식품이었기 때문에 나는 스승님이 알려 주셨던 방법에 따라 그녀에게 집에서 영양 많은 글루텐 만드는 법을 설명해 주었다.

모케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화도 있었다. 아침에 이곳 주요 광장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고 있을 때 한 남자는 전단지를 받자마자 “아, 당신이 이 전단지를

나눠 주시는 분이시군요. 내일 오후 1시에 방송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다음날 다른 도시로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는 문제없다면서 바로 그날 오후에 인터뷰 시간을 잡았다. 나중에 방송국에서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이 ‘대안적 라디오’라는 것을 알려 주었다! 그의 매끄러운 진행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며, 그는 전단지 아래쪽에 실린 웹사이트에서 언급한 ‘채식을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에 나온 몇 가지 핵심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생방송 인터뷰를 함께한 모케과 유니버설 라디오(Universal Radio)의 카를로스 베라 마나리즈(Carlos Vera Manarritz) 씨에게 감사드린다. 🌸

🌿 페루 아레키파와 푸노 🌿

나머지 2천 5백 장의 전단지는 아레키파에서 배포하기로 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는 『판타스티코(Fantastico)』 81호와 82호 마지막 페이지에 전단지 내용을 신기로 하는 또 다른 배포 방법을 강구했다. 이 잡지는 신비 현상을 다루는데, 매주 4천 부 정도 발행된다. 그후 우리는 전단지를 1만 부 더 인쇄해 계속해서 페루 남동부에 위치한 푸노(Puno)로 가서 그곳 연락인과 그녀의 남편, 딸과 함께 주요 거리와 푸노 대학교에서 전단지 5천 장을 배포했다. 🌸



푸노 국립대학교 정문 앞에서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배포하다.

🌿 볼리비아 라파스 🌿

이어서 나는 남은 전단지 5천 장을 가지고 볼리비아 라파스(La Paz)로 가서 주로 프라도(Prado) 거리와 산안드레스(San Andres) 국립대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대학교에서는 몇몇 젊은이들이 걸음을

멈추고 나와 함께 채식에 대해 얘기를 나눈 후 앞으로 라파스에서 행사나 강연회가 열리게 되면 알려 달라면서 자신들의 이메일 주소를 남겼다.

전단지를 받아든 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통해 이 정



보가 범상치 않은 곳에서 유래된 것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전단지 속에 기본적인 음식 자료와 단순한 정보를 뛰어넘는 또 다른 지원의 힘이 담겨 있으며, 그것이 바로 자신들 마음 깊은 곳에서 갈망해 왔던 것임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렸다. 다음날 나는 다시한 사람대학교와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에서 전단을 배포했다.

마지막 5천 장의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배포한 후 나는 아레키파로 돌아왔다. 신의 축복으로 겸손하게 봉사할 기회를 얻어 신의 사랑과 축복의 씨앗을 많은 사람들에게 뿌릴 수 있었다! ✨



라파스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안적인 삶’을 읽고 있다.

대한민국

‘대안적인 삶’에 대한 좋은 반응들

서울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2006년 3월 12일, 대구와 인근의 동수들은 대구의 중심부에서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배포하고 채식 시식회를 가졌다.



일부 동수들은 동물 캐릭터 복장을 했는데, 아이들에게서 큰 인기를 끌며 아이들은 멀리서 이 귀여운 동물들을 보고 달려와 사진을 찍느라 바빴다. 그 중에서 특히나 동물들을 좋아한 세 명의 아이들은 함께 전단지를 배포하고 나중에는 동수들을 따라 센터에 가서 같이 차를 마시기도 했다.

교사로 재직 중인 한 사저는 청소년들에게 채식을 통한 자비로운 생활 방식을 소개하기 위해 자신의 교실 게시판에 ‘대안적인 삶’ 전단지와 채식에 대한 뉴스잡지 기사들을 게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채식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서울

2006년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킨텍스(Kintex)에서 서울국제 식품전이 열렸다. 50개국에서 약 6백여 업체들이 참가한 한국 최대 규모의 이번 식품전에는 매일 식품 업계 전문가 5만 명 이상을 비롯해 수많은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식품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식품 재료, 음료, 제과, 제빵, 식품 납품 분야 전문가들이 이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전시회는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배포하기에 최고의 기회였으며 채식 홍보를 하기에도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되었다. 이에 식품 관련 사업을 하는 동수들을 포함해 서울과 영동의 동수들이 전시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홍보했다.

'대안적인 삶' 전단지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았다. 지하철 광고를 통해 이미 이 내용을 보았다는 이들이 아주 많아서 지하철 광고의 위력을 실감케 하기도 했다. 학교의 영양사와 식품 납품업체들은 단체 급식을 위해 콩고기를 사용하면 절반 가격으로 저렴하면서 깨끗하고 건강하고 경제적이며 영양도 만점인 급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 큰 관심을 보였다.

이 행사에서는 3만여 장의 '대안적인 삶' 전단지가 배포됐으며, 다양한 콩고기 제품 시식회를 제공했다. 또한 서울 센터에서는 '하루 한 끼 채식이 지구를 살립니다'라는 채식 정보 전단지를 제작, 배포해 사람들에게 채식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완전 채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던 사람들도 하루 한 끼 채식으로 시작하려는 제안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하며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는 '생명사랑 1천만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다. 서명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이다.

1. 하루 한 끼 채식하기.
2. 단체 급식에 채식 식단 선택권 제공(학교, 기업, 군대, 교도소 등).
3. 동물 학대 방지법 강화.

처음 시작할 때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서명 운동에 동참할지 걱정하기도 했으나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불과 4일 만에 8천여 명이 이 내용에 동의하며 자발적으로 서명했던 것이다. 동수들은 이 서명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대안적인 삶'의 내용이 인쇄된 채식 통조림 제품을 선물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선물을 받지 못했는데도 흔쾌히 서명해 동수들을 감동시켰다. 이 서명 캠페인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계속될 예정이며 채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견을 서명으로 모아 국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시해서 채식하기 더 편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동수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한 끼 채식하세요”, “채식은 사랑입니다”, “채식이 지구를 살립니다” 등의 구호를 목이 쉬어라 외치며 스승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시간이 갈수록 피곤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힘이 나고 스승님의 무한한 은총을 느끼며 행복해지는 모습에 스스로 놀라워할 정도였다. 특히 이번 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높아진 의식 수준과 채식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목격하며 동수들은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원이 된 것에 감사했다. 🌸



필리핀

국경을 뛰어넘어 채식의 메시지를 나누다

포모사 타오웬 뉴스그룹 종합 보도 (원문 중국어)

지구상의 모든 중생에 대한 스승님의 지속적인 관심에 부응하고자 포모사 동수 일행 31명은 각자 타오웬과 가오슝을 출발해 필리핀에 도착한 후 필리핀 동수들을 도와 필리핀 국민들에게 ‘대안적인 삶’의 메시지를 전하고 자비심을 일깨웠다.

가능한 한 빨리 필리핀 전역에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동수들은 네 조로 나뉘어 한 조는 마닐라에 남고 나머지 세 조는 바기오(Baguio), 세부(Cebu), 타클로반(Tacloban)으로 향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구호 팀은 황금시대 3년(2006년) 2월에 산사태로 인한 이재민을 돕기 위해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 자선 복권 협회(PCSO) 마누엘 모라토(Manuel Morato) 이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

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잡지 164호 기사를 참고하세요.) 그래서 동수들은 3월 22일 마닐라에 도착한 후 바로 모라토 씨를 방문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이 감사 편지에서 스승님은 모라토 씨에게 “그는 훌륭한 관리일 뿐 아니라 정말 예의 바르고 신실한 신사”라고 칭찬하셨다. 🌸



마누엘 모라토 씨(가운데)와 동수들.



바기오

3월 23일, 우리 차는 모뉴멘토(Monumento)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백화점과 작은 상업 지역을 발견한 우리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전단지를 배포했고, 얼마 안 되는 사이에 모든 사람들 손에는 우리 전단지가 들려 있게 되었다. 전단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진지하게 읽어 보았는데, 채식을 하는 몇몇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지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한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줄 전단지를 요청하기도 해서 동수들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선사했다. 이어서 우리는 산페르난도(San Fernando)에 가서 서둘러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3월 24일 이른 아침, 우리는 수빅 만(Subic bay) 공업단지 입구와 그 인근 시장 등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을 목표로 삼아 1시간 만에 엄청난 양의 전

단지를 돌렸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전단지의 내용에 대해 물었으며 채식 식당의 위치를 묻는 사람들도 있었다. 해질 무렵 바기오에 도착했을 때, 그곳 어울락 동수들이 오토바이로 우리를 목적지로 안내해 주었다. 마침 퇴근과 하교 시간이라서 거리는 인파로 가득했다. 우리는 모두 열린 차에서 내려 주로 육교와 인도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기 시작했다. 그 결과 수빅만 공업단지에서만이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순식간에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전단지를 받아 갔으며 그곳 아이들 몇 명으로부터 열성적인 도움을 받기도 했다.

3월 25일에는 2개 조로 나뉘어 한 조는 바기오 대학으로 가고 다른 한 조는 시장으로 가서 전단지를 돌렸다. 시장에서 만난 한 귀여운 채식주의자는 엄지를 치켜올리며 우리를 격려해 주었고, 어떤 사람은 전단지의 '소' 그림을 가리키며 자신은 불교 신자라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마닐라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인도 학생은 바기오로 관광을 왔다가 우리와 마주치고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물었다. 그는 우리의 이상을 이해한 뒤 이를 적극 지지하며 함께 전단지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런 모든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우리는 정말 큰 힘을 얻었다. 신의 안배로 2시간 만에 전단지를 다 돌릴 수 있었다. 🌸



마을이 순수한 오토바이 기사들이 전단지를 받은 후 자신들의 행복한 모습을 찍어 달라고 요청하다.

세부

3월 23일, 여섯 명의 동수들로 이루어진 한 조는 세부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그 시간을 이용해 공항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다. 여든 살이 넘는 한 노부인은 전단지의 내용에 대해 알고선 이웃에게 나눠 줄 전단지를 몇 장 더 요청했다. 세부에 도착한 동수

들은 다시 2개 조로 나뉘어 상가 지역과 학교에서 전단지를 나눠 주었다. 상가 주변에는 사람들로 복잡했기 때문에 2시간도 안 돼서 모든 전단지가 배포되었다. 한편 학교 쪽에서는, 마침 하교 중이던 학생들이 전단지를 받아 갔다. 일부 학생들은 놀라고 흥분한 나



머지 바로 친구들을 불러 전단지를 받아 가라고 했으며 심지어 가족들에게 줄 전단지를 챙겨 가기도 했다. 근처 식료품 가게 주인도 전단지의 내용에 대해 묻고 선 전단지 나눠 주는 일을 열심히 도와주었다. 다음날

우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2개 조로 나뉘어 일을 했고, 신의 은총으로 사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배포 작업을 이틀 만에 끝낼 수 있었다. ✨

🌿🌿🌿 타클로반 🌿🌿🌿

타클로반은 레이테 섬(Leyte Island) 북동쪽에 위치한 인구 약 18만 명의 도시이다. 3월 24일, 우리 팀은 나발 빌리람(Naval Biliram) 마을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 축복 받은 작은 마을에 신의 메시지를 전해 주자 대부분의 주민들은 기뻐하면서도 놀라

워했고 전단지에 대해 물어보러 오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는 두 조로 나뉘어 상가와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다. 학교와 직장으로 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거리는 인파로 가득했고 전단지를 받은 사람들 모두 주의 깊게 내용을 읽어 보았다. 두 시간 만에 전단지가 모두 동이 났다. ✨

🌿🌿🌿 마닐라 🌿🌿🌿

마닐라에 남은 동수들은 여러 조로 나뉘어 차이나타운, 마키타(Makita) 역, 시장, 선셋대로(Sunset Boulevard), 퀘존(Quezon) 시, 버스 정류장과 같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에서 전단지를 돌렸다. 이곳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으며, 호기심을 갖고 주저 없이 전단지를 받아 가 주의 깊게 읽었다. 몇몇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며 관련 정보를 묻기도 했고 몇몇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전단지 배포를 도와주었다. 경비원들과 경찰관들도 임무 때문에 그렇다며 관할 구역에서 전단지를 배포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매우 우호적으로 대해 주었고 전단지의 내용을 잘 받아들였다. 그 중 한 경찰관은 자신도 채식을 한다면서 우리의 생각에 동의를 표했다. 3월 25일 저녁, 오랜 친구인 조 래드 산토스(Joe Lad Santos) 씨가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는 그의 도움으로 마닐라에서 제일 큰 신문인 『마닐라 불러틴(Manila Bulletin)』에 전단지 내용을 게시해 보다 많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알렸다.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신의 은총 속에 동수들은 준비해 온 14만 장의 전단지를 모두 성공적으로 배포했다. 동수들 모두 이번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겼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필리핀 국민들과 접하면서 그들의 순수함과 상냥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신의 은총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길 기원한다. ✨



관음법문을 통해 증명된 신의 사랑

리 사저 구술/ 타이베이 뉴스그룹 정리 (원문 중국어)



1987년에 입문한 리 사저는 중학교 때부터 다양한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로부터 종교를 믿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녀는 늘 불교든 기독교든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든 믿음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여겼으며 모든 종교 속에는 신, 또는 주님이라 불릴 수도 있는 하나의 위대한 힘, 공통된 기원이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하루는 직장 동료 중 한 명인 판 사저가 그녀에게 『즉각 깨닫는 열쇠』 제1권을 주었다. 그 책을 읽은 후 리 사저는 채식에 하려고 노력했다. 당시 가톨릭 신자였던 또 다른 직장 동료는 스승님의 책을 탐독하고 있는 그녀를 보고 호기심을 가졌다. 리 사저가 그 책이 진리에 대한 책이라고 알려 주자 미심쩍었던 동료는 책에서 허점을 찾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승님의 완벽한 지혜에 머리를 숙이게 되었고 얼마 후 입문했다. 리 사저도 몹시 입문하고 싶어했지만 당시 스승님이 안거 중이셨기 때문에 그녀는 매일 입문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입문식에 참석하라는 공지를 받은 리 사저는 나무에서 지지귀는 새 처럼 기분이 좋았다.

입문 후 신디엔으로 스승님의 강연을 들으러 갈 때면 리 사저는 웬지 모를 지복과 위안으로 충만해져 오고 가는 길 내내 울곤 했다. 평소 출근해서는 점심 시간 동안 판 사저와 함께 회사 창고에서 명상을 했다. 명상이 끝나면 다시 기운이 샘솟는 듯했고 업장이 씻겨나가 깨끗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생활은 이렇게 즐거웠고 모든 면이 순조롭게 흘러갔다. 리 사저는 출퇴근하는 두 시간을 명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버스가 덜컹거리고 가다 서다를 반복했지만 그녀는 차 안에서도 삼매에 들 수 있었고 내면의 태양과 달, 별을 봄으로써 정말 관음법문이 굉장하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내려야 할 곳이 다가오면 자비로운 화신 스승님이 때 맞춰 깨워 주셔서 제때에 내릴 수 있었다. 때로는 차에서 내리고 나서도 깊은 삼매에서 깨어나지 못해 방향을 찾지 못하기도 했다. 리 사저는 “스



승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수행의 가장 좋은 체험입니다.”라고 말한다.

1989년 7월, 스승님은 시후 센터의 백화림에서 제자들에게 내면의 체험을 얘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리 사저가 자신의 체험을 발표하자 스승님은 장주를 통해 해먹을 보내셨고 그녀는 지금까지도 그 해먹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선칠 행사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나머지 그녀는 직장에서 휴가를 받기 위해 매일같이 일거리를 집에 가져와 한밤중까지 일했다. 직장에서 휴가를 받은 후에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에 그녀는 남편에게 절절한 심정을 담은 편지를 써서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하는 한편,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달라고 부탁했다. 리 사저의 신실함에 감동한 남편은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 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시후로 가는 동안 그녀는 기쁨의 눈물로 손수건을 흠뻑 적셨다. 원래 선 행사 참가는 아무리 봐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스승님의 은총으로 모든 장애가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그 선칠 행사 중 어느 날, 스승님은 800명이 넘는 동수들을 한 줄로 세워 한 사람씩 안아 주고 머리와 손을 만져 주시면서 인내심을 갖고 제자들의 사연들을 들어주셨다. 많은 동수들이 길을 잃고 멀리 해마다가 엄마 품으로 돌아온 아이들처럼 눈물을 참지 못했다. 리 사저도 명상홀 한쪽에 조용히 앉아 제자들을 안아 주시는 스승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지켜보았다. 우주 성모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감동을 남겼다! 스승님이 안아 주신 후 그녀는 명상 중에 특별히 좋은 체험을 했다. 언저리에 빨간빛과 노란빛이 있는 하얀 빛무리가 폭포수처럼 머리 위에서 떨어지더니, 이어서 그 빛들이 서로 엉켜 그녀의 몸으로 쏟아졌다. 그 순간 사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바다에 잠긴 듯 그 속에서 헤어나오고 싶지 않은 느낌이었다.

스승님은 개개인의 좋고 나쁜 품성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시며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당신 혼자서 모든 업장을 짊어지신다. 우리의 바람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스승님은 그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한 발자국 걸을 때 스승의 힘은 수천 걸음을 걸어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셨듯이 말이다. 리 사저는 제자들에 대한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

발자국의 주인

청하이 무상사/ 1992. 2. 27. 말레이시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220

언제나 명상하는 매우 신실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스승에게 불평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명상을 할 때면 제 수행의 길에 항상 두 쌍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걸 봅니다. 하나는 제 발자국이고 다른 하나는 스승님의 것이지요. 스승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스승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이를테면 제가 쓰러지거나 가장 절망적일 때는 한 쌍의 발자국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스승님은 어쩌서 그런 상황에서 저를 돌보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제가 넘어지고 절망적일 때는 저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에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란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했다. 그 한 쌍의 발자국은 바로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안고 가기 때문이지.” (대중 박수) ✨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만든다

청하이 무상사/ 1988. 10. 13. 포모사 타이난 (원문 중국어) MP3-CG02

만약 수행을 할 때 계를 지킬 필요도 없고 신구의의를 청정히 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농담을 하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수행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어린 아이 장난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그렇게 쉽게 궁극의 진리를 얻은 수행자는 없었습니다. 삼계를 벗어나 높은 곳에서 온 존재들만이 문제가 없고 장애도 거의 없이 수행을 해서 진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방해물이 있다 해도 기껏해야 마귀를 보는 정도였거나 석가모니불처럼 성불하기 직전 마왕이 아내와 아들, 또는 예쁜 여자로 변해 유혹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부처는 “너는 환상일 뿐이다.”라고 말하고선 그 환상을 통제해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석가모니불이 겪은 장애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아무 장애도 겪지 않고 6년간 수행해서 성불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법문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6백 년, 아니 6백 겁을 수행해도 아무 성과가 없을 것입니다. 모래로는 밥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관음법문을 수행한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수행자들은 등급이 삼계 내에 있는 삼계를 초월했던 신구의의를 청정히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삼계를 초월했다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바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어딘가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삼계 내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묶여 있고 이완되지 않았으며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서둘러 수행에 매진한다면 곧 삼계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 어떤 부처든 진리를 얻기 전까지는 매우 힘들게 수행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가 사막에서 수행을 할 때조차 마야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힘들게 수행해서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려던 찰나에 마왕이 나타나 “나를 숭배하면 삼계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했지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한 겁니다. 사실 삼계의 왕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가장 높은 힘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신을 강렬하게 생각해야 하며, 다른 낮은 경지에서 헤매지 말고 최고의 경지로 돌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우 긍정적이고 강력한 분위기를 조성해 그것으로 우리 자신의 천국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명상 센터를 만들 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센터를 구상하고 설계한 후 다함께 모여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



금 이 센터를 갖게 되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 좋은 설계를 구상해 놓지 않는다면 올라간 후에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해 초고층의 뛰어난 설계를 갖고 있다면 초고층의 경지에 가게 됩니다. ‘일체유심조’ 아니까요.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을 창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전능한 힘을 잊지 말고 매일 신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십시오. “저는 당신만을 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당신이 주시면 받을 것이고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풍족하게 살 수 있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기만을 원합니다. 또다시 생사의 굴레를 윤회해야 하는 천인(天人), 인간, 아수라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신구의의를 청정히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진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율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수행이 진보할수록 더욱 민감해지며 그렇게 되면 저절로 계율을 지키게 됩니다. 그때는 계정해(戒定慧)를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계율, 삼매,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는 듯 지혜가 있게 되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숨쉬고 손 씻고 세수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간단한 일이 됩니다.

일부러 이 세상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을 계속하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자연스레 세상이 우리를 놓아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단단히 묶여 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로 내가 여러분에게 세상을 놓지 못하고 연연한다고 엄하게 질책한다 해도 여러분은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반성하고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 세상을 놓아 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명성이나 이익, 돈과 같은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지요. 있으면 쓰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명리와 관련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우주에 그 무언가가 존재하기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만물은 본래 공(空)한 것입니다. 꽃이 생기기 전,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기 전 우리가 누구였겠습니까? 본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이 모여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덧없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저 인연이 합쳐져 생겨난 것이므로 나중에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오랜 기간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정말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얻었다 하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나의 재산입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에게 그것을 잠시 보여 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살 만한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야만 여러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수행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냥 내 말만 듣고 ‘원래 만물은 공(空)이고 업장은 본래 없는 것이니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다. 정말 대단하다! 스승님이 하신 말씀은 뭐든지 진리니까 스승님만 믿으면 된다.’ 하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직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의의를 청정히 해야만 합니다. 청정해질수록 재난과 질병은 더욱 적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 처해도 다른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천국과 지옥이든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모나코



‘녹색 왕자’가 모나코의 왕좌에 오르다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5년 11월, 앨버트 2세 왕세자(Prince Albert II)가 모나코의 통치자가 되었다. 모나코는 프랑스 옆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 유럽에서 군주가 통치하는 진정한 의미의 마지막 왕정 국가이다. 모나코는 군대와 소득세가 없고 이민 정책에 있어서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1962년에 제정된 헌법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앨버트 왕세자는 평범한 왕자가 아니다. 그는 올림픽 봅슬레이 경기에 다섯 차례 출전했고 검은 띠를 갖고 있는 유도 유단자이다. ‘녹색 왕자(Green Prince)’로 알려진 그는 전기 자동차를 운전한다. 그가 왕자로서 처음으로 취한 행동 중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교토 의정서(Kyoto Treaty)에 서명한 것이었다. 그는 직접 과학 탐험대를 이끌고 북극해로 가서 지구 온난화 현상을 연구하는 등 놀라운 행동으로 이 조약을 실천했다. 또한 이번 4월에 북극권 원정에 나설 더욱 야망 찬 준비를 하고 있다.

앨버트 왕세자는 현재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보다 많은 도움을 제공하도록 힘쓰고 있다. 그는 개인적으로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와 사하라 사막 이남의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한 개발 프로젝트에 기금을 대고 있다.

왕자의 주요 사명 중 하나는 기아를 없애고 환경을 살리는 전세계적인 투쟁 속에서 모나코를 인도주의 중심 국가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그는 물질적·영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모나코의 자랑스러운 상징이다. ✨



모나코의 앨버트 2세 왕세자 전하.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브라질



녹색 에너지로 세계를 이끄는 브라질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많은 세계 지도자들의 관심이 브라질로 쏠리고 있다. 브라질은 자동차 연료(에탄올)의 절반을 사탕수수에서 얻고 있다. 휘발유보다 더 깨끗하게 연소되는 에탄올은 브라질 국내에서 생산되는데 보다 효율적이며 석유 전쟁도 끝낼 수 있다.

브라질의 원유 독립은 최근 들어 스웨덴과 미국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두 나라는 브라질의 사례를 따를 것이란 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 1월, 전에 석유 사업을 했던 미국 대통령은 2025년까지 미국 수입 석유의 75퍼센트를 에탄올로 대체하겠다는 놀라운 내용을 선언했다. 에탄올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현재 상당한 자금을 확보한 채 야생초와 같은 여러 가지 작물에서 더욱 효율적인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참고: <http://edition.cnn.com/2006/WORLD/americas/03/10/brazil.ethanol.example.ap/>)

브라질은 효율적인 에너지 도시 계획에 있어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도시 계획자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로 공인받은 쿠리티바(Curitiba) 시는 시민의 85%가 이용하고 있는 독창적인 버스 운송 시스템을 갖고 있다. 가장 빠른 버스가 지하철의 수용 승객 수와 비슷한 최대 300명에 달하는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배기가스의 배출을 크게 감소시켰다. 이 밖에 쿠리티바 시는 시내 많은 거리를 보행자를 위한 인도로 바꾸고 곳곳에 녹지 공간을 만들어 공기의 질을 향상시켰다. 공원의 잔디는 기계가 아닌 양이 깎는다. 전세계 41개 도시들이 쿠리티바를 모델로 한 도시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보다 많은 도시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08년 올림픽을 준비 중인 베이징이 그 중 하나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

(참고: <http://www.commondreams.org/news2006/0308-05.htm>)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유럽의 국경 개방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7년 10월에 동유럽 8개 국가가 국경 검문소를 없애기로 함에 따라 서유럽과 동유럽 간의 분열이 마침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나라는 유럽 내 자유 여행과 자유 무역을 제정한 쉥겐 협정(Schengen Treaty)에 서명한 26개국 연합에 가입한 상태이다. 당초 독립 정책을 견지하던 스위스 국민들까지 2005년 6월에 표결을 통해 협정을 채택했다.

쉥겐 협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럽은 출입국 통제 문제로 분열되어 있었다. 20세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대륙은 무겁게 드리워진 '철의 장막'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쪼개져 있었지만 이제는 각 국가들 간에 환영의 뜻말만 있을 뿐이다. ✨

세계는 지금 흡연 추방 중

미국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전세계 많은 나라 정부들이 국민의 건강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가지게 됨에 따라 적극적인 금연 정책과 더불어 간접 흡연 퇴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유럽

2006년 3월 21일, 유럽연합 의회의 리즈 린(Liz Lynne, 영국) 의원과 ❤️❤️❤️❤️ 아다모스 아다모(Adamos Adamou, 사이프러스) 의원은 ❤️❤️❤️❤️ EU 의회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럽연합 국민의 죽음에 대한 보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했다. '연막을 걷자'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간접흡연에서 비롯되는 각종 암으로 매년 7만 9천 명의 유럽인이 사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새로운 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전의 부정확한 연구들이 과거 유럽연합의 금연 조치를 연기시키기 위해 '연막'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과거 담배 회사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암 발병 위험성은 측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이 때문에 간접흡연의 성분이 직접 흡연자의 사망 원인으로 알려진 치명적인 화학 성분과 똑같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외면되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담배 회사들이 동물을 이용해 비밀리에 진행한 간접흡연 실험 800건을 참고로 하고 있다. 그 중 일부 실험에서는 재떨이나 손에 쥔 담배에서 낮은 온도로 연소되어 방출되는 화학물질이 직접적으로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주 1)

보고서에는 금연법이 유럽 국가들에 미친 영향을 다룬 일련의 새로운 연구들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가장 최근인 2월 20일에 발표된 한 연구는 노르웨이에서 금연법을 시행한 후 노동자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공기의 질이 향상됐음을 측정했다. (주 2)

EU 보고서는 앞으로 유럽연합 전 국가에서 공공연한 흡연 금지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탄탄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린 의원은 다음과 같이 공표했다. “고용인과 소비자들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금연법을 시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영국이 올여름부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아직 금연법을 시행하지 않는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은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는 ♥♥♥♥♥♥ 2006년 3월부터 공공건물에서의 완전 금연을 시행함으로써 역사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는 광범위한 새로운 공공 위생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여기에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눈 검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금연법은 새로 조직된, 제복을 입은 흡연 단속 경찰들에 의해 집행되는데, 그들은 흡연자에게 50유로(미화 90달러)의 벌금을 징수하고, 공공건물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200유로(미화 4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법은 한 번의 벌금도 부과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실효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국민 협조 핫라인’을 통해 몇 건의 고발문을 받긴 했지만 이는 경고문을 통해 쉽게 해결되었다. 건강부의 한 공무원은 “국민의 준법 정신이 경이적이다.”라고 말했다.

이 금연법은 대중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아 스코틀랜드 흡연자의 70%가 담배를 끊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 4) 금연법이 시행된 후 담배를 끊도록 조언해 주는 ‘전국 금연 전용선’에 걸려 오는 전화가 네 배나 증가했다. 사실 금연법이 곧 시행되리라는 예상 때문에 2005년 ‘금연 전용선’에 걸려 온 전화는 이미 그 전년도에 비해 두 배가 증가한 상태였다. (주 5)

금연법은 여러 지도층의 용기 있는 행동에서 비롯되었다. 이 모든 것은 200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스코틀랜드와 이웃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전임 건강부 장관 마이클 마틴(Micheal Martin)은 ♥♥♥♥♥♥ 아일랜드의 전통 술집 주인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 금

밝은 미래를 여는 깨달은 정부

스승님의 지시에 따른 보도 및 스승님의 평점

연령을 결정했다. 이 일은 전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다른 나라의 대표자들이 이 법을 알아보기 위해 아일랜드를 방문했다. 스코틀랜드의 초대 장관인 잭 맥코넬(Jack McConnell)도 ♥♥♥♥♥♥ 그 중 한 사람이었다. 맥코넬 장관은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전면적인 금연령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일랜드를 방문한 후 1년 안에 금연법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영국 연방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금연법이 통과돼 2007년 여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주 6)

“지금은 누구도 유럽연합 전체에 금연법이 시행되리란 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흡연과 건강 실천(Action on Smoking and Health)’의 회장인 루크 클랜시(Luke Clancy) 교수가 말했다. “몇 년 새에 이런 중요한 건강에 대한 의제가 이렇게 다른 대접을 받게 되다니!” (주 7) 아일랜드의 뒤를 이어 이탈리아, ♥♥♥♥♥♥ 노르웨이, ♥♥♥♥♥♥ 스웨덴, ♥♥♥♥♥♥ 스페인, ♥♥♥♥♥♥ 벨기에, ♥♥♥♥♥♥ 우크라이나가 ♥♥♥♥♥♥ 모두 금연법을 통과시켰고, 덴마크는 ♥♥♥♥♥♥ 2006년 3월 28일 전국적인 금연법을 공포했다.

심지어 남성 중 60%가 흡연을 하는 터키에서조차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간(Recep Tayyip Erdogan) 국무총리가 전면적인 새로운 금연법 시행에 앞장서고 있다. 이 새 금연법은 종전의 제한적인 금연법을 강화해 TV 제작자에게 TV 프로그램에서 담배가 나오는 장면을 뿌옇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우루과이도 ♥♥♥♥♥♥ 3월 1일 전국적으로 엄격한 금연령을 내린 첫 번째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되었다. ✨

미 국

뉴 욕 ♥♥♥♥♥♥

2005년 12월, 뉴욕 시는 애완동물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담배 연기 없는 가정’ 캠페인을 시작했다. (주 8)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들 간접흡연 피해자들은 종종 담배 연기로 가득 찬 집안에서 하루 종일 갇혀 지낸다. 최근 연구 결과, 흡연 가정에 사는 고양이는 고양이과의 가장 일반적인 암인 고양이 임파종 발병률이 4배 높았으며, (주 9) 개의 경우 비공 악성종양에 걸릴 확률이 2.5배 높은 것으로 발견됐다. (주 10) 간접흡연은 개와 고양이, 새들에게 각종 호흡기 질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유아에게는 치명적이며 어린이의 호흡기 질환, 폐 기형, 귀의 염증을 유발한다. ✨

각 주 참고: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66/index3.htm>

지구를 푸르게 만드는 백만장자

요한 엘리야쉬 ♥♥♥♥♥♥♥♥

라파엘라 디 아고스티노 사저/ 영국 런던 (원문 영어)

억만장자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구를 구하기 위해 자기 돈을 쓰는 일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업가 요한 엘리야쉬(Johan Eliasch)는 바로 그런 일을 했다.

엘리야쉬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은 성공 기록을 남겼다. 그 중 가장 주요한 것은 테니스 라켓과 스키 장비 생산업체로 잘 알려진 헤드(Head) 사의 회장이자 CEO라는 것이다. 은행가이자 영화 제작자이기도 한 그는 야당 외교장관의 재무 특별고문이자 영국 보수당 재단(Conservative Foundation)의 부회장이며, 국제평화재단(International Peace Foundation) 자문위원, 시몬 페레스 평화재단(Shimon Peres Peace Foundation)의 체육 자문위원, 사회정의센터(The Centre for Social Justice)의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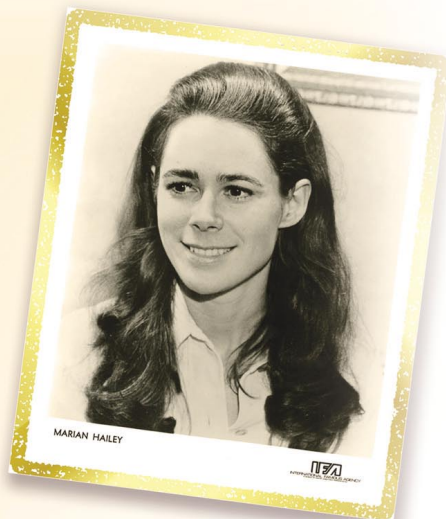
2006년 3월, 엘리야쉬는 브라질의 벌목 회사로부터 약 8백만 파운드(미화 1,400만 달러) 상당의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40만 에이커를 사들였다. 그의 땅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북서쪽으로 1,600마일(약 2,590km) 밖에 있는 마테이라(Madeira) 강 북쪽에 위치해 있다. 이 땅을 구매한 주된 이유가 환경 보호에 대한 신념과 지구를 구하겠다는 열정 때문이라는 그는 “아마존은 세계의 심장입니다.”라고 말했다. 엘리야쉬는 과학자들이 자신의 땅에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생물을 찾아내 탐구하도록 할 것이다.

최근 영국 채널 4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나무에 대한 사랑과 산림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아마존은 지구 산소의 20%를 생산합니다. 따라서 이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엘리야쉬는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도록 권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숲을 살수록 벌목되는 나무들이 적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곤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건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일입니다. 지구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요. 마구잡이로 벌목을 하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온실 효과와 허리케인의 발생은 열대우림의 벌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재난과 혼란을 막기 위해 열대우림을 보존해야 합니다.”

나는 모든 억만장자가 이처럼 지구를 돕는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한다면 지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세계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뻐다. 그러므로 고귀한 이상과 행동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하겠다. ✨

브로드웨이 배우에서 관음법문 수행자로 마리안 헤일리-모스의 다채로운 인생 여정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인정받는 여배우이자 작가이며 인도주의자인 마리안 헤일리-모스(Marian Hailey-Moss)는 1960년대 초 미국의 셰익스피어 축제에서 연극배우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다. 60년대 중반에 뉴욕으로 이주한 그녀는 뉴욕의 혁신적인 무대에 전념하면서 6편의 브로드웨이 연극과 수많은 전위 예술 작품, 그리고 4편의 주요 영화에서 열연했다. 마리안이 영화 '연인과 이방인(Lovers and Strangers, 1970년작)'에서 이상주의 구도자인 브렌다(Brenda) 역할을 맡았을 때, 『뉴욕 타임즈』는 "이상한 구석이 있는 칼릴 지브란에서 따온 듯한 브렌다의 역할이 성공적인 것은 마리안이 그 역할을 매력적으로 소화해 냈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이 영화는 프레드 칼린(Fred Karlin)의 음악으로 오스카상을 받았는데, 칼린은 후에 칭하이 무상사를 위해 오라토리오 '평화를 구하는 자(The Peace Seeker)'를 작곡하게 되었다.

마리안은 '세서미 스트리트(Sesame Street)'의 대본작가이자 작곡가인 전설적 인물 제프 모스(Jeff Moss)와 결혼했다. 이 프로그램은 텔레비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쇼로 불린다. 마리안 부부는 12년 동안 뉴욕 센트럴파크 서구에 있는 호화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그동안 보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인류에 봉사하고 싶은 마리안의 열망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는 스트레스가 많은 뉴욕이라는 환경 속에서 심리 치료사로 일하는 것이 이를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다.

사람들이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외에 마리안은 도시에서 어렵사리 살아가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다친 새들을 치료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다. 그런 새들은 고층건물의 창에 부딪혀 다친 경우가 태반이었다. 1993년에 칭하이 무상사에게 입문을 함으로써 마리안의 구도 생활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현재 맨하튼에서 개 리퍼와 네 마리 새(윈킨, 블린킨, 노드, 스피피)를 데리고 살면서 일과 관음법문 수행을 병행하고 있다.

마리안은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는 한편 자신의 인생과 동물 친구들에 대한 소설과 많은 단편을 쓰고 있

는데, 이 단편 중 일부는 잡지에 게재되거나 대중에게 소개된 바 있다. 작문 워크숍에서 마리안을 지도하고 있는 총체적 글쓰기 교사 프레드 풀(Fred Poole)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그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격렬한 창조성과 기량을 가진 다재다능한 마리안 헤일리-모스는 브로드웨이 배우와 심리 치료사로서의 삶에 깊이 몰두했었고 지금은 걱정적이고 눈부신 이 이야기들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로서의 삶에 전념하고 있다." 마리안의 웹사이트(www.marianhaileymoss.net)에 들어가면 그녀의 단편 중 일부를 볼 수 있다.

다음은 최근 마리안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이 인터뷰에서 그녀는 일반인과는 다른 자신의 인생 경력과 오랜 구도 생활에 대해 얘기했다.

질문: 영화를 찍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마리안: 매우 극적이지요. 굴곡도 많았고요.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용기와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끝없는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화려한 브로드웨이에서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까?

마리안: 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만 그것이 영성인지는 몰랐어요. 초연을 하기 전과 오디션을 보기 전에만 신께 기도를 했지요. 의식적으로 구하고자 했던 것은 일의 성공이었지만 공연을 할 때마다 점차 불편한 마음이 들면서 연예계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질문: 맡으셨던 배역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배역은 '연인과 이방인'에서의 브렌다 역이었는데요. 당시에 그 역에 동화되어 연기하셨나요?

마리안: 저는 연기했던 모든 역할에 동화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슴으로부터 연기할 수 없지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브렌다를 연기했을 때 마치 저 자신을 연기하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질문: 고전인 셰익스피어의 여주인공에서 50개가 넘는 TV 광고의 여성 대변인까지 매우 다양한 역할을 연기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배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안: 제가 했던 최고의 공연은 1963년 오리건 애쉬랜드 셰익스피어 축제 때 맡았던 줄리엣 역할이었어요. 저는 그 역할이 제 얘기처럼 느껴졌어요. 제 친척들은 제게 첫사랑이었던 젊고 제멋대로인 청년을 못 만나게 했었고 절망에 빠진 저는 춤을 추고 연기를 하게 되었죠.

배우라면 어떤 대본이 주어지든 그걸 해석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전통 코미디인 '하비(Harvey)'를 공연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배우들은 모두 오후가 되면 전위 예술 극장의 연습실에 가서 몸에 붙는 옷을 입고 신음소리를 내며 감정을 표출하곤 했습니다.

질문: 어떻게 청하이 무상사를 알게 됐나요?

마리안: 친구 한 명이 입문자였는데, 어느 날 밤 저와 몇 사람을 초대해서 스승님의 UN 강연 비디오를 보여 줬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채식을 시작했고 입문을 결심했지요. 당시 제 생활은 영적인 길 말고는 다른 방도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이 나타나신 거지요!

질문: 연기를 하다가 어떻게 심리 치료사를 하게 되었나요?

마리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저는 치료사가 되는 것과 연기를 하는 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다른 게

있다면 저와 환자(또는 고객)가 극본을 쓴다는 거지요. 또 연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진실을 찾는 거고요. 다만 이 생활은 배우였을 때와 같은 극적인 생활 방식을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명상은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이 기본이지요. 전에는 항상 제가 맞는 말을 하는지, 제대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걱정했지만, 이제는 스승님이 함께하시니까 모든 게 괜찮다고 느껴져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스승님이 돌보시니까요. 제 고객도 그렇게 생각하는 듯 반응합니다.

질문: 무엇 때문에 글쓰기를 시작하셨나요?


마리안: 관음법문을 수행하면서 얻게 된 선물인 것 같아요. 저는 명상을 해야만 글을 쓸 수 있어요. 때로는 제 영감이 다른 근원에서 얻어지는 느낌이에요. 2세게일 수도 있지요. 확실하진 않지만요.

질문: 어떻게 뉴욕에서 새를 구하기 시작했나요?

마리안: 다친 새를 발견한 것이 새를 위한 '911'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또 이웃에서 솜씨가 좋고 믿음직한 조류 치료사를 찾아냈는데, 그녀는 종종 제가 집에 데려온 새들을 낫게 해줬어요. 저는 새들을 돕는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셰익스피어 정원에서 별새 한 마리를 놓아주기도 했어요. 그 일은 살아 있는 시와 같았습니다. 저는 뉴욕에 사는 새들의 요구가 다른 곳에 사는 새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밀집된 도시 환경에 사는 새들에게 좀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요. 사람들이 동물 세계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다 잘 실감할 수 있도록 '101가지 친절 수칙' 같은 교육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청하이 스승님께 청할 게 있다면요?

마리안: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스승님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제 마음과 영혼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없습니다. 스승님이 곧 답이시니까요. 



예술 공연을 통해 확장되는 신의 품성

에바 규로바 사저/ 불가리아 소피아 (원문 불가리아어)

스승님의 재가 제자인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일이나 직업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물론 의사, 인도주의 활동가, 교사 같은 특정 직업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고귀한 이상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일들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신성을 보다 잘 깨닫기 위한 의식적·무의식적 동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된다.

예술 작품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게 해주는 내면의 창조력은 이런 과정의 한 예이다. 예술은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사랑하도록 이끌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해준다. 나는 오랫동안 연기와 춤의 매력에 빠져 있었지만 정작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러다 무대와 무용 연습실에서 한동안을 보내고 나서야 차츰 그 해답의 일부나마 발견하게 되었다.

춤을 추거나 연기를 할 때, 연기자는 보다 완전하고도 의식적으로 몸과 마음, 영혼을 운용하게 되며 일상생활에서 간과하기 쉬운 자신의 내적·외적 자질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 밖에 일부 걸출한 배우들은 연기를 하는 동안 육체를 벗어나는 체험을 했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의식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연기를 관조하는 이런 체험들을 통해 그들은 보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육체적 형상을 관찰하고 그 몸을 이용하는 것을 배우게 되며 그와 동시에 인간의 육체적 측면을 초월한 또 다른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유명한 연극배우들은 이 창조적 과정을 모방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고 많은 연기 교사들도 육신을 뛰어넘는 의식의 확장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그 기본 원칙은, 자기 자신 밖의 물체나 인물에 집중할수록 자의

식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확장된 육체’, 또는 ‘확대된 육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연기자들이 보다 의식적이 되고 보다 개방적으로 주변 환경을 잘 이해하게 된다는 점이다.

영화와 춤에서 이런 기술과 원칙을 적용해 본 결과, 나 역시 이 환상적인 ‘정상의 범주를 벗어난 초월적’ 느낌을 경험했다. 그런 상황들은 개인의 모든 문젯거리를 잊게 하고 구태의연한 습관의 틀을 부서뜨려 더 좋게 변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인식하게 해준다. 이것은 자신을 밖에서 관찰할 때 자기 자신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예술 행위는 에고를 극복하는 훌륭한 도구라 할 수 있다.

물론 스승님도 여러 차례 이 점을 가르치셨다. 최근 헝가리 선행사 비디오테이프에서 스승님은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신 바 있다. 스승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고자 노력할 때마다 그들에게로 향하는 그 행위가 우리를 확장시킨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커지고 위대해지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상 또한 더욱 숭고해지는데, 이는 우리가 보다 넓어진 시각으로 세상을 관찰하며 더 이상 자신의 육체나 개인적인 관심사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에 있어서 우리 스승님보다 더 완벽한 본보기는 없을 것이다. 우리

는 스승님 속에서 우주의 모든 곳과 그 속의 모든 창조물에 사랑과 축복의 힘을 비추시는 위대한 존재를 보게 된다. ✨

*에바 규로바 사저는 배우 겸 박사 과정 연구원이다.



스승님은 각 개인의 필요에 따라 조언하신다

청하이 무상사/ 1999. 2. 15. 미국 플로리다 선사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35 하편

질문: 저는 정말 예술 창작을 하고 싶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하면 되지요. 왜 안 하지요?

질문: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게 되지 않을까요?

스승님: 어쨌든 당신은 지금도 마음속으로 집착하고 있으니 그냥 하세요. 나는 뭘 하라고 부추기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어서 내 의견을 물으면 나는 그렇게 하라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 한 사람에 대한 것이지, 그걸 일반화된 주제로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따라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른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응하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 답하지만 그것을 이론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내 집에서는, 내 단체에서는 이렇게 해야 좋으니까 이렇게 행동해라.” 하는 식으로요.

나는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부추기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아주 쉽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지 않지요.

나는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부추기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아주 쉽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지 않지요.

질문: 예술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는 예술을 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데 쏟아야 할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자의 경우가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고귀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스승님: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어느 정도에서 선을 그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승님: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당신은 명상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이든 센터를 돕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생활 방식을 선택합니다. 누구나 싫어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기를 좋아하고 일을 해야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일을 즐깁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일 외에 다른 관심거리가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내 가르침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계를 지키고 명상을 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직업의 본질은 직위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청하이 무상사/ 1999. 10. 30.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65 상편



질문: 어떻게 하면 직업의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승님: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어느 직업이든 압박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압박감이 없는지 물어보십시오. 집안일을 해도 압박감이 있고 아이를 키워도 압박감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질문: 중국 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승님: 학생들이 압박감을 주나요?

질문: 학생들은 불평을 하고 동료 교수들 사이에선 경쟁이 심합니다. 모두들 종신 재직권을 따기 위해 전문 분야에서 치열히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승님: 왜 그렇죠?

질문: 신입 교수들은 5년에서 6년 정도 평가 기간을 거친 후 안정된 직위를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교수 평가, 학술 연구, 논문 발표 같은 분야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시간은 늘 부족하기만 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없다는 걸 알지만, 우리 같은 경우엔 느긋하게 뭔가를 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스승님: 언제나 시간에 쫓기는군요.

질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젠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참을성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스승님: 그래서 압박감이 크군요. 집안일도 하나요?

질문: 아닙니다.

스승님: 직장 일만 하나요?

질문: 예. 집에 돌아와서도 연구를 하고 발표할 논문을 씁니

다. 그래야 종신 교수직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종신직을 얻지 못하면 직장을 잃게 됩니다.

스승님: 그 일을 좋아하나요?

질문: 어느 정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다른 일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그런 원칙에 신경쓰지 말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진 않나요?

질문: 아뇨. 저는 이 일을 좋아합니다.

스승님: 그러면 그 일을 계속하되 대가를 치르세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는 거지요? 왜 시간을 내지 못합니까?

질문: 끝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준비를 끝내면 학생들을 돌봐야 하고 그러고 나면 논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스승님: 그렇지요. 그리고 나면 또 학생들의 많은 과제물을 읽어야 할 거고요.

질문: 하지만 스승님도 매우 바쁘시잖아요.

스승님: 아니에요, 나는 그 정도로 바쁘진 않습니다. 보세요. 그저 여기 앉아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내가 바쁜 것처럼 보이나요? (대중 웃음)

질문: 그런데 스승님도 바쁘실 때는 화를 내시나요?

스승님: 그럼요! 자주 화를 냅니다. 바쁘지 않을 때도요! (대중 웃음) 아니에요. 바쁠 때는 당연히 압박감이 더 많습니다. 그게 정상이지요. 그렇지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되 그렇게 못 해도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화가 나거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때는 뭔가를 손에 쥐거나 가지고 있으세요.

질문: 그것을 꼭 쥐라고요?

스승님: 예. 꼭 쥐고 자신에게 상기시키세요. 내 사진을 쥐어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일은 생략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문학을 가르친다면 그 중 가장 훌륭한 작품만 선택하고 다른 쓰레기 같은 글은 읽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글을 읽느라 시간을 다 써 버릴 겁니다. 당신은 이미 어떤 게 가장 훌륭한지 알고 있으니 보다 영적이고 학생들에게도 영혼의 양식이 될 자료를 고르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골라 활용하세요. 그것이 학생들에게도 좋습니다. 학생들도 중국 문학 속의 쓰레기를 너무 많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문학 작품은 쓰레기투성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특정한 주제에 한정하도록 하십시오. 아무거나 읽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렵지만 시간이 흐르면 무엇을 골라 읽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찾으세요. 그러면 그것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잘 선택하세요. 당신이 잘 모르겠거나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은 것이라면 먼저 인터넷 같은 곳에서

그것을 찾아보세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조리 있으며 학생들에게 가장 이로운 것, 더불어 당신도 즐길 수 있는 것인지 보세요. 이렇게 하면 쓸모없는 것을 연구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과제물을 읽어야 한다면 빨리 읽으십시오. 속독을 배우십시오. 그것도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몇 분이면 책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지요. 그러니 시간을 좀 내서 속독을 배우세요. 그러면 책을 읽거나 학생들의 과제물을 봐야 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무엇 때문에 시간을 뺏기지요?

질문: 경쟁과 불안한 마음입니다.

스승님: 경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됩니다. 지면 지는 거지요. 알겠어요? 훌륭한 패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위를 너무 바라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것을 원하지 말고 그냥 재미로 하세요. 학생들이 지식을 쌓도록 돕기 위해 하세요. 자신의 인생을 실현하기 위해 일하세요. 일자리를 잃게 되면 잃는 겁니다. 그 일을 잊어버려요. 그 일자리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완벽한 방식으로,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을 보내기 위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되 일자리에 대해선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나는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을 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요. 순전히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일하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 일자리를 얻게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얻지 못해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일만 너무 강렬하게 원하지 마십시오.

질문: 하지만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스승님: 아뇨, 그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일자리에 대해선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직위를 얻기 위해 일하지 말고 학생들의 배움과 당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세요! 직위에 대해선 잊어버려요. 만약 당신이 그 직위를 얻기 위해 일한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자신을 싸구려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일하지 말고, 학생들이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을 얻도록 돕기 위해 일하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최고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건 당신의 자아실현



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 일하니까요. 경쟁을 하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닌 거지요. 이해하겠어요? 그것이야말로 일을 하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직위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중 박수)

미국 대통령조차 그렇습니다. 겨우 4년 동안 집권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선거 운동에 쓰고 매년 수백만 달러를 쓰는지 압니까? 어떤 후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전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그에 비하면 당신의 노력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당신은 그나마 돈이라도 벌지만 그들은 본전도 안 납니다. 그들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 못 되면 돈을 잃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돈을 다 써 버리다니, 정말 안됐습니다! (대중 웃음)

반면 당신은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에 대해서도 가장 만족스러울 겁니다. 이 세상이 그 직위를 준다면 좋지요. 그게 신의 뜻이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당신은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게 최고의 보답이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보수이며, 당신이 마음속으로 갖는 지위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건 싸구려입니다. 우리는 수행자이므로 그런 것을 생각 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당신이 이리저리한 지위를 얻는 날까지 살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중 웃음과 박수) 대부분의 압박감은 우리 스스로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일까지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 ‘여기 앉아서 5년을 기다렸다가 교수직을 얻어야지.’ 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정말 압박감이 큼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압박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압박감을 받아야 하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바보들과 일을 해야 합니다. 슬픈 일이지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손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

관음 웹사이트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URL: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관음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시켜 주며 ‘예술과 영성’이라는 TV 프로그램에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나라별 언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와 『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를 전자책(eBook)이나 인쇄용 포맷으로 다운받을 수 있고 각 사이트의 온라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지내면서 신의 인도에 따르라

칭하이 무상사/ 1999. 10. 30.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65 상편

질문: 제한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믿음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제한 요소인 것처럼 느껴지고 제 두뇌가 저에게 말하는 방식이 인생을 즐기는 데 장애가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스승님: 이를테면요? 인생에서 무엇을 즐기고 싶지요?

질문: 저는 사고방식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을 보러 가면 스스로 그 일이 제게 안 맞는 까닭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남자 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도 마음속으로 제게 자격이 있는지 의심합니다.

스승님: 남자 친구에 대해서요?

질문: 예. 남자 친구, 일자리, 돈에 대해서요.

스승님: 나는 당신이 '좋은 일'들이 당신에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당신은 그 일자리가 좋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면 당신 자신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질문: 저는 마음속으로 저 자신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일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고요.

스승님: 그 직업이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늘 그런 식인가요?

질문: 예. 언제나요.

스승님: 하루 24시간 내내요? 와! 정말 피곤하겠군요. 어떻게 아직도 거기 앉아서 숨쉬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냥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지금 데이트하는 사람은 있어요?

질문: 없습니다.

스승님: 지금 '데이트하는' 직장은요? (대중 웃음)

질문: 아뇨. 지금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 직업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질문: 명상을 할 시간이 있을지, 돈을 충분히 줄 것인지, 회사 근처에서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을지 등과 같은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직업에 대해서만 이르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대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관점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눈앞에 좋은 것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 자신의 결점을 알고 있다니 매우 긍정적이군요.

질문: 예.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뇌의 어떤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요.

스승님: 좋아요. 그럼 어떻게 그 문을 열겠어요? 생각해 본 게 있나요?

질문: 명상을 더 많이 할까요?


스승님: 아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명상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명상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사용하면 됩니다. 당신은 여기(스승님이 지혜안을 가리키심)에 무척 많은 것을 재어 놓고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일자리를 구하러 가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제쳐 놓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신하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 갔을 때 ‘이 일은 내게 맞지 않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바로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누가 알아? 여긴 좋은 회사일 수도 있어. 승진을 할지도 모르고 돈을 더 많이 받을지도 모르지. 여건도 더 좋고 일도 더 좋고 직장 분위기도 더 좋을지도 몰라. 여기서 남자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어쩌면 내년에 사장과 결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야. 사장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회사를 통째로 물려줄지도 모르잖아!’ (대중 웃음) 왜 안 되지요?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있나요?

당신이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불가능해!’ 하고 여긴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리란 건 또 어떻게 장담합니까? 양쪽 다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럴 바에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설령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적어도 새로운 일을 해봤고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었으니 즐거운 일이지요.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둘 기회는 많습니다. 들어가는 게 어렵지 나오는 건 쉽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당신에겐 항상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직업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겠지요. 그러니 가볍게 즐기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주변 환경과 동료들에게 익숙해질 시간을 주십시오.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면 그들에게서 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것을 알려 주거나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이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거나 당신이 좋아할 만한 식당에 데려다줄 수도 있습니다. 또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찾게 될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그냥 해보세요. 최악의 경우라고 해봤자 아파트를 찾지 못하거나 보수를 더 많이 받지 못해서 직장을 잃는 정도입니다. 그건 그때 가 봐야 알지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미리 결론짓지 말고 우선 해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스승님이라면 나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스승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도망가실까? 스승님도 지금의 나처럼 생각하실까?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실까? 스승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겠지요?’ 아니면 예수라면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처라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 내면의 신이라면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고, 당신 내면의 신께 인도해 달라고 하고 그냥 즐기세요. 일이 즐거워지고 새로운 동료들이 재미있고 새로운 회사가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재미있는 모험처럼 생각하세요. 모험은 항상 위험으로 가득하잖아요? 당신이 아프리카에 가서 코뿔소를 발견하고 그 위에 올라탄 사진이 CNN에 방영될지 누가 압니까? 아니, 어쩌면 코뿔소한테 죽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게 모험의 묘미입니다. 

동물의 사랑

왕 사저/ 중국 (원문 중국어)

충직하고 선량한 누렁이

1969년 가을, 나는 시골로 내려와 농장 합숙소에 혼자 남게 되었다. 형편이 어려운 가족을 돕기 위해 보다 많은 노동 점수를 얻어야만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급우들처럼 자주 집에 갈 수 없었다. 열일곱, 열여덟의 어린 소녀였던 나 혼자 텅 빈 다섯 채의 집에 있으니 무척 외롭고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다행히 농장 주 집에서 기르던 커다란 누런 털의 개가 종종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 개는 누런 털이 반짝이고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매우 이해력이 뛰어났는데, ‘누렁이’라고 불렸다. 누렁이는 내 심정을 잘 헤아리는 듯했다. 내가 행복할 때면 내 주위를 돌며 경충경충 뛰면서 춤을 추었고, 내가 우울할 때는 가만히 옆에 앉아 있었다. 때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무렵이면 누렁이는 멀리서부터 달려나와 나를 반겨 주곤 했다. 일을 나가지 않을 때면 나는 누렁이와 얘기를 하며 같이 놀았다. 누렁이는 내게 크나큰 정신적 위안을 주었고 그 힘들었던 시절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일은, 내가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였다. 기차역은 합숙소에서 30km나 떨어져 있었지만 누렁이는 줄곧 기차역까지 동행해 주었다. 내가 쭈그리고 앉아서 쓰다듬으며 작별을 고했지만 그는 떠나려 하지 않았다. 내가 기차에 오른 뒤에도 누렁이는 묵묵히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는 창가에 기대어 손을 흔들며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누렁이는 기차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기차가 점점 더 속도를 내자 누렁이도 더 빨리 쫓아왔지만 결국 누렁이의 모습은 서서히 멀어져 갔다. 내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

렸다. 그때는 정말 기차에서 뛰어내려 누렁이에게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는 누렁이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동물들에게 감정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누렁이가 그렇게까지 충직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30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가슴 뭉클했던 순간은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 나는 종종 이 얘기를 내 아이들에게 해주며 ‘동물은 인간의 좋은 친구’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동물의 충직함과 자비심을 알려 주곤 한다.

길을 잃었다 돌아온 꽃님이

내 딸아이가 열두 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길에서 주운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달려와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엄마! 고양이야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우리, 이 고양이 키워요!” 하던 일을 멈추고 뒤돌아서 보니 딸의 작은 손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새끼 고양이가 놓여 있었다. 고양이는 커다란 눈망울과 조그마한 입, 비단처럼 부드러운 털에 희고 노란 줄무늬가 그려져 있었는데, 너무나 예뻐서 신이 빚은 작은 공예품 같았다! 나는 여기 있게 해 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고양이의 눈에 푹 빠지고 말았다. 그때부터 우리에겐 식구가 하나 더 생겼고 딸은 고양이에게 ‘꽃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런데 꽃님이네 네 살이 됐을 때 갑자기 없어졌다. 우리 온 가족은 걱정에 휩싸여 온 사방을 찾아다녔고 딸아이는 하루 종일 울어댔다. 며칠이 지났지만 꽃님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모두들 희망을 잃어 갈 무렵, 딸아이의 고모가 우리 집에 와서 꽃님이네 돌아오는 꿈을 꾸었다고 얘기했다. 딸아이는 바로 문을 열

고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다. 아침 여섯 시 무렵, 먼지투성이가 된 채 바짝 마른 꽃님이가 미친 듯이 집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집으로 들어온 꽃님은 집안을 한 바퀴 뛰어다니다가 재빨리 사다리를 타고 침상으로 올라가 딸아이의 팔에 안겼다. 마치 길 잃은 아이가 엄마를 찾은 것 같았다. 우리 가족은 모두 펄 듯이 기뻐하며 한 사람씩 꽃님을 껴안고 애정이 넘치는 뽀뽀를 해주었다.

꽃님은 딸과 함께 있으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후로 우리는 이 작고 귀여운 고양이를 더욱 소중히 돌보게 되었다. 꽃님은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무한한 위안과 즐거움을 준다. 꽃님과 영적으로 교류하거나 정을 나눌 때마다 “동물과 인간은 평등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하신 스승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곤 한다. 


종족을 뛰어넘는 사랑의 세계

거북이 선배를 뒤쫓는 아기 하마

게리 사형과 카렌 사저/ 일본 도쿄

[몸바사]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에서 쓰나미가 발생한 후, 케냐의 어린 하마가 무리를 잃고 해안에서 꽤 멀리 떨어진 산호초까지 끌려 갔다. 산호초에서 혼자서 생존해야 했던 새끼 하마를 지역 주민들이 어망으로 구출해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었다. 새끼 하마를 새로운 하마 떼에 집어넣으면 무리의 우두머리 수컷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하마를 동물보호소로 옮기기로 하고 ‘오웬(Owen)’이란 이름을 붙여 주었다.

오웬은 자기 엄마와 가장 비슷한, 덩치가 큰 회색의 친구를 찾고 싶었는지, 아니면 므지(Mzee, 스와힐리어로 ‘현명한 어른’이라는 뜻)라는 이 거북이의 사랑을 느꼈는지, 바로 므지를 선택했다. 거북이를 보자마자 그 옆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처음에 므지는 이 어린 구애자를 무시했다. 하지만 오웬이 열성적으로 따라다니자 거부하지 못하고 결국엔 떨어질 수 없는 단짝이 되고 말았다.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특이한 단짝들은 매일 밤 같이 잠을 잔다. (사진 참고) 오웬은 하마가 일반적으로 먹는 풀 대신 거북이가 좋아하는 채소를 먹는다. 사이좋은 이 친구들은 종종 연못에서 애들처럼 장난을 치기도 하고 같이 산책도 다닌다. 또한 새로운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둘 다 자기 종족의 고유한 소리 대신 높은 음의 압호로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전문가들도 이 언어를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npr.org/documents/2005/jul/owen&mzee_ebook.pdf



사랑하는 므지 선배를 열성적으로 쫓아다니는 오웬.



오웬과 므지가 서로에게 의지해 쉬고 있는 모습.



쥐와 고양이의 가족애

아선 사형/ 포모사 (원문 중국어)

쥐와 고양이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이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은 만화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 장춘 시에서는 고양이와 쥐가 화목하게 살고 있다. 심지어 이 고양이는 쥐를 자기 품안에 안고 잠을 자기까지 해서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얼마 전, 장춘에 사는 '샤오 리'는 쥐가 창문 틈새로 들어와 나가려 하지 않아서 골치를 앓고 있었다. 게다가 이 쥐는 굉장히 사나워서 아무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온갖 방법을 궁리하던 샤오 리는 문득 친구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야옹이'를 떠올리곤 친구에게 가서 고양이를 빌려 왔다. 그는 야옹이가 실력을 발휘하길 바라며 하룻밤 굶기기까지 했다.

다음날 야옹이는 샤오 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창문 틈새로 들어가 쥐돌이(샤오 리가 쥐에게 붙인 이름)와 마주치곤 경계심을 보이며 눈에서 시퍼런 불꽃을 튀기고 수염을 잔뜩 세운 채 “야옹” 하고 울었다. 쥐돌이는 겁을 먹은 나머지 바로 종이 상자 안으로 도망가 고개만 내밀고 야옹이를 바라보았다. 야옹이는 재빨리 쥐돌이를 덮쳐 밖으로 끌어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발생했다. 야옹이가 쥐돌이를 잡아먹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돌아서서 샤오 리를 쳐다보며 마치 “이건 내 먹이가 아니에요.” 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몇 차례 “야옹” 하고 울었다.

지금까지 쥐돌이와 야옹이는 다정하게 함께 살고 있다. 가끔씩 쥐돌이는 야옹이에게 뽀뽀를 하기도 하는데, 고양이가 자신을 죽이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듯하다. 야옹이 또한 쥐돌이가 자기 품안에 안겨 잠을 자도록 관대하게 봐준다. 이렇게 해서 고양이와 쥐 사이에 보기 드문 가족애가 연출되고 있다. ✨



위에 나온 이야기는 오늘날 세계 어디에서나 사랑의 힘이 점점 더 강해져 온갖 한계를 뛰어넘고 있음을 드러낸다. 심지어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동물들 간의 우정에도 한몫 하고 있다.



스승에 대한 믿음이 기적 같은 결과를 낳다

미구엘 모라 사형/ 코스타리카 산호세 (원문 스페인어)

친애하는 무상사께

당신의 사랑과 끊임없는 인도와 보호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택시 기사를 하고 있으며, 6개월 전에 입문해서 관음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주 산호세 센터로 단체명상을 나가고 있고 단체명상에서 호법을 설 때면 무척이나 행복합니다.

며칠 전 피를 많이 쏟았는데, 밤이 되면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응급실에 입원해서 위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피는 몇 시간째 흘렀고 결과도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저의 출혈이 만성 염증을 동반한 위암의 한 증상이라고 설명하곤 바로 응급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스승님의 힘을 굳게 믿었고 마음속으로 스승님께서 제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걸 깊이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불을 외면서 명상을 했고 스승님의 사랑과 더욱 강하게 연결되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스승님의 힘이 이미 제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후 의사들이 다시 검사했을 때 제 몸에서는 암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12시간 만에 건강해졌던 겁니다!

오늘 저는 퇴원한 지 24시간 만에 다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력이 약간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스승님의 힘이 정말 모든 것을 안배하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었던 또 다른 경험은, 스승님의 축복 덕분에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복잡한 서류 절차가 빨리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행성을 축복하시는 놀라우신 큰스승에 대한 저의 마음을 전세계에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승님!

2006년 2월 7일

제자 미구엘 올림



티베트의 승려가 스승님에게로 인도해 주다

매튜 서피스 사형/ 호주 태즈메이니아 (원문 영어)

호주 남동 해안에 위치한 올런공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1999년 4월 어느 장날에 나는 교내 오리 연못 근처에 있는 작은 탁자 뒤에 앉아 있던 한 사자를 만났다. 그 탁자에 놓여 있던 스승님의 책과 견본책자 겉표지에 인쇄된 '즉각 깨닫는 열쇠'라는 글귀가 바로 내 눈길을 끌었다.

내가 열두 살 때부터 부모님이 내게 명상을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수행이라는 것에 익숙한 편이었고 내 내면에는 늘 영성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대학가의 파티에 젖어 생활하고 있었다. 그 사자에게 관음법문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본 후, 하루에 두 시간 반씩 명상하려면 파티에 갈 시간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견본책자 한 권을 받아 왔다. 나중에 견본책자를 읽고서 스승님의 모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내가 아직 관음법문을 수행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내면에 남아 있던 영성의 불씨는 더욱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듬해 학기 동안 나는 다른 명상법으로 매일 명상하기 시작하면서 영성 서적도 많이 읽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 해변에 가서 티베트 불교 닝마파의 스승인 소갈 린포체(Sogyal Rinpoche)가 쓴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티베트의 지혜(The Tibetan Book of Living and Dying)』라는 책을 읽고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전 처음 듣는 내용에 큰 충격을 받은 나는 한 손에 책을 들고 잔디에 앉아 아름다운 해변을 내려다보며 닝마파의 창시자인 파드마 삼바바께

최고의 스승과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법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신실하게 기도했다. 그동안 내게 즐거움을 주었던 파티와 다른 것들이 지루해졌을 뿐 아니라 오랜 취미였던 파도타기도 더 이상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나의 갈망은 커질 대로 커져 있던 상태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나는 침실 서랍장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맨 위의 서랍을 열어 보았다. 거기에는 대학교 교재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빛의 원천이 스승님의 견본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2년 전에 그 사자에게 받고선 까맣게 잊고 있었던 책이었다. 나는 전날 내가 했던 기도를 생각해 내고 그 지역 연락인에게 연락해 방편법을 배웠다.

그리고 6개월 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다. 관음사자가 입문식을 거행하기 위해 호주로 온다고 연락인이 알려 줬을 때, 그때까지도 마음속에는 많은 의심과 장애가 남아 있었지만 나는 입문을 신청했다. 2주 정도 지났을 때 나는 심각한 가정 불화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 입문을 갈망했고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기에 나는 무릎을 꿇고 스승님께 관음사자를 빨리 보내 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러자 1분 뒤 전화가 울렸고 연락인이 입문식 날짜와 시간을 알려 주었다!

티베트 승려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 이 복잡한 두뇌를 가장 높은 지혜의 법문으로 인도해 주신 자비로운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나타난다

말카 사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원문 스페인어)

나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우리 집은 정통 신도는 아니었지만 나는 어렸을 때 유대 초등학교에 보내져 유대의 역사와 전통을 배웠다. 또한 토라(모세 5경)와 구약성경도 공부했는데, 고대 이집트 시대에 모세가 온갖 장애와 위협을 극복하고 유대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이야기는 어린 나를 매혹시켰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모세가 신을 보고 신에게 말하고 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 의자에 앉아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나는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신께 물어봤던 기억이 난다. 나는 결국 신의 응답을 받지 못했고, 신과 소통하고자 하는 갈망은 나의 잠재의식 속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겨졌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나는 나의 존재와 사회 속에서의 역할, 영적인 성장에 대해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나아지기를 원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형제자매로 여기지 못하는 것을 알았고, 수없이 분열된 사회의 갖가지 모습을 목격했다. 나는 그런 사회의 일부분이 되고 싶지 않았다. 배경이나 종교적 믿음이 달라도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단체에 속하기를 몹시 갈망했던 것이다. 당시 나는 70년대 TV 드라마인 ‘쿵푸’를 보곤 했는데, 드라마를 볼 때마다 주인공이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해 내는 순간을 고대하곤 했다. 그 프로그램은 나 자신의 스승을 찾아야 한다는 영감을 주었다. 내 삶을 한층 격조 높게 이끌어 올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정직과 사랑에 있어서 훌륭한 모범이신 부모님에게서도 얻을 수 없고 대학에서조차 배울 수 없었던 최고의 지식을 가르쳐 줄 그런 스승을 말이다.

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나는 먼저 식생활을 바

꾸기 시작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계란을 먹는 채식을 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삶이 더 나아지고 나날이 행복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뭔가가 부족했다.

그러던 어느 날, 두부를 사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다가와 두부를 어떤 식으로 요리해 먹는지 겸손하게 물어봤다. 나는 요리 과정을 설명하다가 나의 삶과 내가 아직 진리의 길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까지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발견한 것을 내가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내가 물건값을 계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카페에서 차를 함께 마시자고 제의했다. 나는 그녀의 초대에 기꺼이 응했다. 카페에 들어간 후 종업원이 차와 쿠키를 가져다주었을 때, 그녀가 쿠키에 계란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안 먹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식생활에 대해 얘기해 주었고, 특히 칭하이 스승님을 만나 관음법문을 수행한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해 주었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나는 이 관음법문이 누구에게나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기뻐했다. 비록 당시에는 앞으로 스승님의 사랑과 관음법문을 통해 무수히 많은 축복을 받게 되리란 것을 몰랐지만 나의 길을 찾았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곧 방편법을 배웠고 몇 달 뒤에 입문했다. 그후로는 스승이나 법문을 다시 찾을 필요가 없었다. 스승님이 참된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 주셨기 때문이다. 스승님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언행이 일치하시고 당신 자신이 살아 있는 가르침의 본보기로서 아름다움과 지혜, 진리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 나는 최고의 목표에 매우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인류를 이롭게 하는 새로운 다이아몬드 응용법

최우 사저/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원문 영어)

다이아몬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4세기경에 산스크리트어 필사본으로 쓰인 고대 인도 경제 논문인 『아르타사스트라(Arthashastra)』에서 볼 수 있다. 서기 6세기에 다이아몬드는 귀한 물체나 귀하지 않은 물체, 심지어 루비에도 흠을 낼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어떤 물질에도 긁히지 않는 고귀한 물질로 알려졌다. 18세기 이후 다이아몬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브라질, 남아프리카, 캐나다, 호주에서 다이아몬드가 채굴되게 되었다.

현대 과학자들은 다이아몬드가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화학반응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물질이라는데 동의한다. 다이아몬드는 내구성이 매우 강하며 마찰계수가 낮다. 즉 다이아몬드 표면에서 다른 물질이 쉽게 미끄러진다는 얘기다. 또한 고온과 고압에서도 안정적이고 전자와 스펙트럼 상의 자외선에서 적외선까지 광범위한 빛의 파장을 통과시킨다.

최근 과학자들은 천연 다이아몬드의 강도와 거의 같은 인조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선 고온고압법(HPHT)과 단단한 기본석에 다이아몬드 필름을 입히는 화학기상성장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이라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사용된다. 그 중 CVD를 이용해 만들어진 다이아몬드 판막은 곧 마찰학(마찰, 윤활, 마모와 관련된 과학과 기술), 녹 방지 코팅, 전극, 광학렌즈, 냉각기, 가스와 입자센서, 의료기 코팅 등과 같은 많은 영역에 적용될 것이다.

‘급속히 생산된 대형 다이아몬드’라는 제목의 CVD 연구 보고서에서는 카네기 멜론 대학(Carnegie Mellon University) 지구물리학 실험실의 러셀 험리

박사(Dr. Russell Hemley)와 동료들이 개발한,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최첨단 발명품을 소개했다. 이전의 CVD를 이용해 만든 다이아몬드는 대부분 갈색인 것과 달리 이 연구원들은 같은 CVD기법을 이용해서 완전히 투명한 무색의 단일 결정체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었다. 이 성과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이들은 “이제 다이아몬드 시대가 열렸습니다.”라고만 말했을 뿐이다.

20세기의 최대 발명품은 컴퓨터였고 이로 인해 컴퓨터 시대가 열렸듯이, 21세기에는 다이아몬드가 과학과 산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를 새로운 시대로 인도할 것이다. 이를테면 비용이 적게 들고 품질 좋은 대형 인조 다이아몬드는 고주파 통신장비의 생산에 필요한 고온고압의 마이크로 전자공학에 폭넓게 이용될 수 있다.

이 밖에 많은 뉴스에서 보도된 것처럼 엔지니어들은 계속해서 다이아몬드를 활용한 새로운 상업적 이용 방식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소니사는 다이아몬드 필름 코팅을 이용해 오디오 스피커의 경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고주파 음질의 재생을 개선시키고 있다. 그리고 현재 트위터 돔(고주파 음을 재생하기 위한 스피커)을 이루는 재질은 고음에서 소리가 흩어지기 쉬운데, 영국의 스피커 제조사인 보워스&윌킨스(Bowers&Willkins)의 연구소장인 게리 기브스 박사(Dr. Gary Geaves)는 “다이아몬드의 독특한 속성은 우리가 단단하면서도 가볍고, 가청 주파수 영역과 그보다 높은 영역 모두의 소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트위터 돔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음악 애호가들이 다이아몬드 부속이 들어간 새로운 스피커를 통해 최고

의 음질을 경험할 날이 멀지 않았다.

또 다른 첨단과학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이아몬드 드릴이 혈관 청소의 새로운 차원을 열다’라는 기사에 실린 로터블레이터(Rotablator)라는 첨단 기구는 이전의 드릴보다 더 작고 회전 속도가 빨라 비교적 작은 혈관에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구는 혈관 벽에 쌓여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혈관을 막아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반을 제거할 수 있다.

미래의 다이아몬드 사용에 관해 스승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다. “원래 다이아몬드는 사람들의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이고 문명화된 훌륭한 기계나 장비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아주 귀한 광물입니다. 현재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나 수정, 금 등을 섞어 수준 높은 장비를 발명할 수 있는 뛰어난 과학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그런 과학자들이 반드시 배출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행성과 접촉해 그들에게서 배울 기회가 있다면, 더불어 지구인들이 함께 협조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의 지구를 눈부시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또한 그런 시대가 빨리 와서 지구인들이 더욱 편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뉴스잡지 93호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우주의 신비’ 중에서,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93/index.-htm>)

인류가 보다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 것 같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된 다이아몬드 연구의 발전이, 지구의 미래에 대한 스승님의 긍정적인 전망이 실현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

참고:

http://www.carnegieinstitution.org/news_releases/news_0505_16.html

<http://www.igcar.ernet.in/mrsi/diamond.htm>

<http://www.chem.wisc.edu/~newtrad/CurrRef/BDGTopic/BDGtext/dtdandtac.html>

<http://www.chem.wisc.edu/~newtrad/CurrRef/BDGTopic/BDGtext/dmpids.html>

<http://www.chem.wisc.edu/~newtrad/CurrRef/BDGTopic/BDGtext/dmpids.html>

로봇이 인명 구조 활동에 나서다

로나 사저/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원문 영어)

머피 박사(Dr. Robin R. Murphy)는 사우스플로리다 대학의 컴퓨터공학 교수이자 인지신경학 교수이며 로봇 지원 수색 구조센터(Center for Robot Assisted Search and Rescue, CRASAR)의 회장이기도 하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걸프 해안을 강타한 지 이틀 후, 그녀의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들이 미시시피 펄링톤(Pearlington)과 세인트루이스 만(Bay St. Louis)에서의 구조 활동에 지원되었다.

당초 카트리나 구조 활동에 참가하고자 뉴올리언스로 진입하려 했던 다른 많은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CRASAR도 여러 장애에 부딪혔다. 그러나 머피 박사의 결정에 따라 UAV가 펄링톤 지역의 조감도를 포착해 송신해 온 영상을 통해 물이 다 빠져 나간 상태이며 지붕 위에 고립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동차 강탈, 약탈 및 총기 사고 등의 혼란으로 이 지역의 재난 실태를 파악할 수 없었던 구조대원들에게 이 UAV는 큰 도움이 되었다.

UAV는 여행 가방 두 개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데다 15분 만에 조립해서 띄울 수 있다. UAV에는 카메라, 마이크, 센서와 같이 구조대원들에게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가 장착되어 있고, 지표면으로부터 100피트에서 400피트 높이의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이 고도는 나무의 높이보다는 높지만 정부



에서 규제하는 공역(空域)보다 낮기 때문에 미국연방항공국(FAA)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UAV 중에는 재해 지역의 넓은 면적을 영상으로 찍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도 있으며, 헬리콥터와 닮은 또 다른 UAV는 지면에 가깝게 저공 비행할 수 있어서 재해 지역의 환경문제와 건물 파괴 정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재민을 찾기 위해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

UAV는 911 테러 이후 뉴욕 시와 버지니아 주,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어 많은 구조 단체들의 격찬을 받았다. 몇 차례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로봇들은 돌무더기 속으로 들어가 이재민들을 찾아내고 구조 팀에게 수색 지점을 알려 주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장착한 장대는 2미터까지밖에 못 들어가지만, 이런 로봇은 보통 5미터에서 20미터 안쪽까지 진입할 수 있다. 로봇은 또한 화재 지역이나 붕괴 위험성이 있는 틈새, 인간이나 수색견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곳에도 들어갈 수 있다. 정보를 수집해서 구조대원들에게 전송하는 일 외에, 로봇은 이재민들에게 유동 음료를 전해 주고 의식을 잃은 환자들에 대해 예비 분류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카프노그래피(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 감지기를 장착해 일정 거리에서 조난자의 호흡 상태를 측정하는 로봇.

머피 박사에 따르면 앞으로 설계될 UAV에는 양방향 무전기가 장착되게 되며 이에 따라 조난자를 찾아내는 확률이 9배나 커질 것이라고 한다! 차세대 UAV에는 줌 기능이 있는 컬러 비디오 카메라가 장착되는 한편 할로젠 조명 대신 LED가 설치돼 폭발성 기체 속에서 기기에 불이 붙을 가능성을 줄이게 된다. 이들 제2대 UAV는 방수 기능과 더불어 주변 온도를 감지

하고 연기, 물, 생물학적 위험, 방사능 노출과 같은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머피 박사는 UAV의 용도에 대해 고속도로 기술자들의 작업 효율을 높이고 구조대원들이 생명을 구하는 데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그녀는 UAV는 시작일 뿐 기기를 통한 구조 기술 분야에 있어 획기적이고 긍정적인 많은 새로운 변화가 임박했다고 설명한다.



로빈 머피 박사와 그녀가 연구, 개발한 로봇.

스승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다. “자연 재해는 꼭 지리적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계의 분위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류가 서로를 불공평하고 적대적으로 대할 때 불안하고 사악하고 호전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며 이로부터 많은 재해들이 만들어집니다.” 즉 아무 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부정적인 생각이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어찌됐든 스승님은 “신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라고도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무심코 지구에 대재난들을 초래하고 있어도 신은 UAV와 같은 첨단과학 장치를 통해 과학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신다. 따라서 이런 신의 자비심에 감사드리려면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지원하고 사심 없이 사회에 공헌하며 온 마음으로 신을 섬김으로써 보다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우리 세계는 영적으로 더 고양될 것이며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보다 안락하게 만들어 줄 많은 진보된 수단도 얻게 될 것이다. ✨

*CRASAR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crasar.csee.usf.edu/MainFiles/index.asp>

*머피 박사의 약력과 2004년 『타임』지 기사를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csee.usf.edu/~murphy/>

세상의 긍정적인 진보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큰 희망, BMW 수소 자동차

플로리다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6년 3월 14일, 독일 BMW사는 2년 내에 수소 자동차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BMW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10년이나 수소 자동차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자동차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다른 여러 자동차 회사들도 2010년 이후에 수소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BMW사의 이번 결정으로 자동차 산업 전체가 이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BMW사에서 현재 연구 개발 중인 제7대 수소 자동차는 최고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 차는 휘발유나 수소로 주행하며 시속 216km(134마일)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데, 경주용 모델의 경우 시속 300km(187마일)에 이른다. 이 회사의 CEO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운전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동시에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수소 자동차는 2020년경에 도래할 것으로 보이는 전세계 ‘수소 경제’ 시대의 일부분이다. 아이슬란드는 이미 석유 공급을 대폭 줄이고 이쪽 경제 체제로 방향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풍력과 수력 발전을 이용한 전력으로 수소를 만들어 ‘수소 충전소’에 보낸 뒤 수도인 레이캬비크(Reykjavik)의 버스들에 공급하고 있다.

BMW사의 수소 자동차는 휘발유 연소 자동차와 수증기만을 배출하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중간 역할을 한다. BMW사의 엔진은 수소를 태우는 반면 연료전지는 배터리와 같이 화학적 확산 작용을 통해 동력을 발생시킨다.

미래의 자동차는 수소 외에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수소는 아주 가벼워서 대기층을 통과해 대기 밖으로 날아가 버리기 쉽기 때문에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 풍력, 태양열 발전판, 또는 식물과 해조류의 변환 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합성 석유제품을 이용한 다른 종류의 연료전지와 배터리도 한창 개발 중이다. 과학자들의 궁극적인 계획은 태양과 같은 수소 융합반응을 통해 태양의 연료인 수소를 이용한 통합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물을 원료로 한 수소 융합반응은 핵반응과 같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희소한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 <http://www.bmwtransact.com/hydrogen/>

미국

봉사 활동을 통해 노숙자들의 심신을 돌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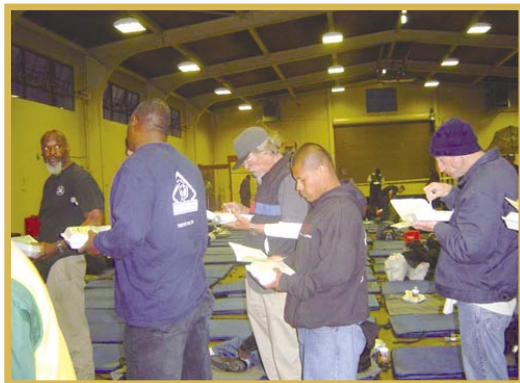
마이 C. 사저/ 미국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오렌지카운티는 ‘동절기 프로그램’을 통해 방위군 조병창을 개방해서 최대 250명의 노숙자들이 일년 중 가장 추운 이 기간을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센터 동수들은 매달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통해 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기뻐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 25일, 동수들은 오렌지카운티 산타아나에 위치한 이 노숙자 보호소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조병창에 도착했을 때부터 스승님의 축복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한 노숙자는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밤 여기 와 주신 여러분에게 신의 축복이 함께하실 겁니다!”라고 말했다. 식사 대접을 받은 많은 노숙자들과 직원들은 채식 요리가 맛있다고 좋아했다. 그들은 동수들이 나눠 준 ‘대안적인 삶’ 전단지에도 고마워하며 주의 깊게 읽었다. 어떤 노숙자는 “이 음식은 정말 맛있군요. 군침이 흘려요.” 하고 말했으며 “저는 이런 채식을 좋아해요. 채식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 직원은 동수들에게 밤늦게 도착할 노숙자들 몫으로 도시락 40개를 따로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동수들이 방문한 지 한 시간도 안 되어

약 245명의 노숙자들이 따끈한 식사를 제공받고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받아 갔다. 이 선물들은 신이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동수들은 이렇게 대중에게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히 여기는 한편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채식을 하는 고귀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조만간 모든 인류가 보다 사랑이 넘치고 채식을 하는 환경 친화적인 생활 방식으로 바뀌 나가길 기도했다. 스승님이 이 세상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끊임없이 축복과 은총을 내리고 있으므로 인류가 보다 자비로운 방식으로 동물을 대할 것이며 모든 중생들의 영성도 더욱 고양되리라 믿는다. ✨



포모사

보육원의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삶의 희망을 밝히다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여성과 어린이의 날이 다가올 무렵, 타이베이 동수들은 이광 보육원과 종이 보육원 두 곳에 일용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선 이들 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다.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 25일 아침, 동수들은 옷과 위생청결용품, 티백, 간식, 과일 주스, 소형 손수레, 컬러 레이저 프린터, 전기 난로, 선물 꾸러미 등의 물품을 이광 보육원에 전했다. 이 보육원은 주로 고아가 된 유아와 어린이, 심신 장애가 있는 집 없는 아이들을 수용해 보살피고 있는데 현재 4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 이광 보육원의 리스메이 원장은 35년 동안 어린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한결같은 사랑으로 일해 왔으며, 장애 아동을 훈련시켜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시키기도 했다. 보육원을 방문한 당일, 동수들은 귀여운 동물 캐릭터 복장을 하고 ‘대안적인 삶’의 내용이 인쇄된 예쁜 서류철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나눠 주었다. 또한 각층마다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아이들을 만나기도 했다. 8년간 채식을 하고 있는 보육원 교사 웨이 양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동수들의 모습을 지켜보고선 몇 년 전 칭하이 스승님께 입문하고 싶었지만 연락 방법을 몰랐다면 반가워했다.

이날 동수들은 서른 가지가 넘는 채식 음식도 제공했다. 스승님의 최신 CD에서 스승님의 달콤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어린이들은 풍성한 식사를 맛있게 먹으며 가족의 훈훈함을 느꼈다. 교사들은 “오늘 이렇게 특급호텔 요리보다 더 근사하고 맛있는 채식 식사를 하게 되다니 우리 아이들은 정말 복이 많아요!” 하고 말했다. 원장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감사를 표하며 다음에 완팡 지역으로 이사한 뒤에도 동수들이 계속해서 원아들을 찾아주길 희망했다.

오후에는 종이 보육원을 방문했다. 이 보육원은 주로 버림받은 영아들과 집 없는 아이들, 심하게 학대받았거나 가정 내 큰 사고를 당한 아이들을 가족처럼 보살피는 시설이다. 동수들은 자전거와 전자레인지, 에어컨, CD 플레이어, 텔레비전, 청소용품, 가정용 상비약, 티백,

간식, 옷, 스승님의 출판물, ‘대안적인 삶’이 인쇄된 예쁜 서류철과 선물 꾸러미 등 생활용품과 영성의 양식, 두 가지를 다 제공해 주었다. 보육원 행정관인 가오 여사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지원에 크게 감사했다.

보육원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밝혀준 이번 사랑의 활동은 동수들의 일치 단결된 협조로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들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곳에 전해질 수 있었다. 



영성 세미나를 통해 창화 교도소에 사랑을 전하다

창화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창화 센터 동수들은 황금시대 3년(2006년) 3월 22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가슴을 안고 창화 교도소를 다시 방문해 감사와 온정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백여 명의 청소년반 재소자들에게 영성의 향연을 제공했다.

강연회 사회를 맡은 동수가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안부를 물은 후 이번 행사에서 칭하이 무상사를 알게 되는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모두들 뜨거운 박수로 호응했다. 스승님의 생애를 간단히 소개한 비디오 ‘사랑의 길을 걷자’가 상영되자 그들은 모두 주의 깊게 시청했고 자주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몇몇 재소자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좀더 이해하고자 견본책자를 훑어보기도 했다. 진지한 얼굴로 집중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살아 계신 큰스승을 알게 된 것에 기뻐하며 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조용히 기도했다.




이날 연사로 나온 사형은 자신의 구도 과정을 얘기해 주었다. 그는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칭하이 스승님이 깨달은 큰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구도 여정을 마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사형은 스승님께서 화롄 교도소에서 하신 강연 내용을 인용해 참석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는 진실된 어조로 ‘인생이란 덧없는 것으로 조만간에 끝이 나게 돼 있으며, 이런 삶을 올바르게 사는 유일한 길은 참회하고 자신을 개선하고 깨달음을 얻어 우리의 진정한 품성을 찾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참석자들은 사형의 열정적이고 신실한 강연에 크게 공감하며 큰 박수로 화답했다.

행사 후반부에는 세계 각지에서 하신 스승님의 강연을 편집한 비디오를 시청하며 재소자들은 세계 각 대륙을 넘나드는 신비한 여행을 경험했다.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정경에 매료된 참석자들은 깊은 탄성을 연발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강연하시는 아름다운 스승님의 모습들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자 더욱더 깊이 매혹되어 넋을 잃고 감상했으며, 강연장에는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가 넘쳐흘렀다. 이어진 방법법 전수 시간 동안,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지시에 따라 조용히 앉아 함께 명상의 모미를 즐겼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수들은 참석자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와 행복을 기원하는 글을 카드에 적도록 한 후 이를 큰 소리로 읽어 주었다. 참석자들의 호응은 대단했다. 대부분 가족과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스스로에 대한 다짐을 적었는데, 일부는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칭하이 스승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카드에는 “세계가 평화로워지고 모든 중생이 해탈하길 기원합니다.”라는 신실한 기

도가 적혀 있기도 했다. 절절한 감사의 표현들을 보며 동수들은 정말 큰 감동과 감명을 받았다. 우리는 재소자들이 쓴 감사카드를 모두 모아 앨범으로 만들어 교도관들에게 선물했다. 교도관들은 재소자들의 진심 어린 표현을 읽고 기뻐하면서 우리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참석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 속에 행사는 끝났다. 동수들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으며, 영성을 고양시킨 이번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스승님의 축복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렸다. 



2006년 1월부터 2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지출 일람표

표 1과 표 2 합계: NT\$ 571,570 (미화 약 17,630.17달러)

표 1: 2006년 1월부터 2월까지 포모사 내 극빈 가정 돕기 지출 명세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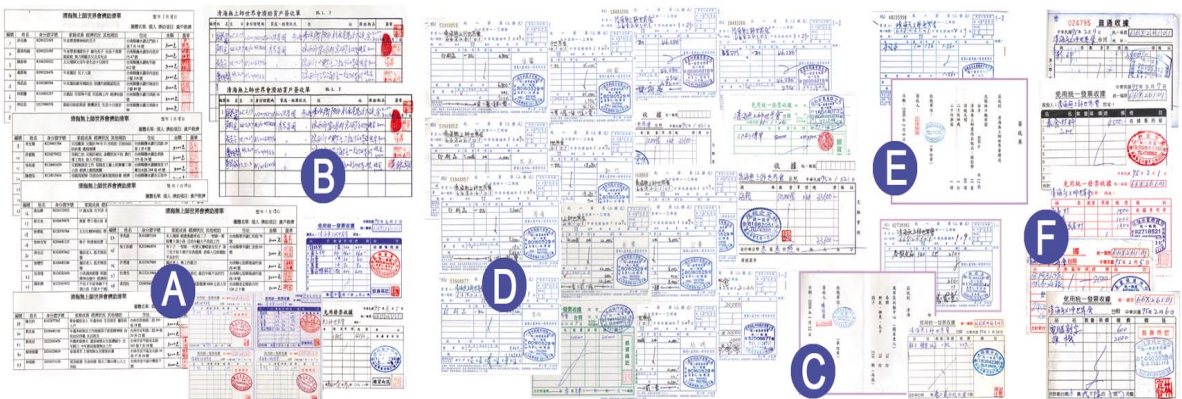
(단위: 대만 NT)

지역	2006년 1월		2006년 2월		부록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타이베이	4	13,000	4	13,000	1
미아오리	—	—	1	3,000	2
창화	1	3,000	1	3,000	3
가오슝	1	4,000	1	4,000	4
타이둥	2	9,000	1	4,000	5
월별 소계	8	29,000	8	27,000	

표 2: 2006년 1월부터 2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지출 명세표

(단위: 대만 NT)

지역	날짜	활동 내역	금액	부록
창화	2006. 1. 4.	창화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지도. (동수 자원 봉사)	0	
타이난	2006. 1. 6.	연말연시 극빈 가정과 양로원을 방문해 사랑과 온정 전달. 채식 시식회 및 공연 프로그램 개최, 성금 전달.	121,130	A
창화	2006. 1. 7.	연말연시 극빈 가정을 방문해 사랑과 온정 전달. 겨울옷과 구호금, 영성 서적 선물.	15,000	B
타이베이	2006. 1. 12.	신정 시간 동안 독거 노인들에게 계절 음식과 선물 전달.	3,511	C
타이난	2006. 1. 25.	타이난 교도소, 타이난 소년원, 타이난 민터 개방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지도. (동수 자원 봉사)	0	
전국	2006. 1. 22.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조류 독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안적인 삶' 전단지 배포해 사람들에게 건강을 유지하고 사랑의 마음을 키울 것을 상기시킴.	348,169	D
타이베이	2006. 2. 8.	노숙자 친구들에 대한 사랑의 활동. 타이베이 현 노숙자 갱생 보호소인 '관심과 돌봄의 집'에 쌀 600kg, 일용품, 영성 서적 전달.	10,560	E
진먼	2006. 2. 12.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진먼 제등 축제 박람회에 참가. 칭하이 무상사의 만세등과 출판물 전시.	17,200	F
타이난	2006. 2. 22.	타이난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지도. (동수 자원 봉사)	0	
총 계:			NT\$515,570	



스승님의 농담



침묵이 금이다

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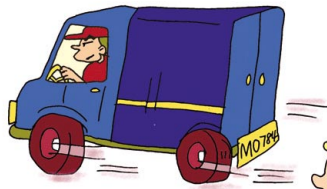
어느 날, 한 남자가 술집에 들어와서 바텐더에게 술 한 잔을 시켰어요. 그리고선 한 잔, 또 한 잔 하며 몇 잔을 연달아 마시자 바텐더는 손님이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내와 싸웠는데, 아내가 31 일 동안 말을 안 해!” 바텐더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부인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닌가요?” 이에 남자가 대답했지요. “그야 그렇지. 문제는,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라는 거야!” ✨

정보가 틀렸어

청하이 무상사/ 2003. 2. 4.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DVD No. 754

한 농부가 우체국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 사람이 뛰어들어와 외쳤어요. “누가 당신 트럭을 훔쳐가고 있어요!” 농부는 황급히 뛰어나갔다가 바로 돌아왔습니다. “훔쳐가지 못하게 막았나요?” 하고 이웃 사람이 묻자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아뇨, 너무 늦었더라고요. 하지만 그의 차 번호를 알아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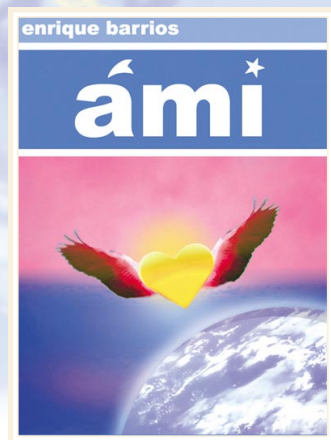
스승님의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66/jk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66/jk1.htm> (포모사)

우주적 대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별을 찾아 떠난 여행』



칠레 작가인 엔리케 바리오스(Enrique Barrios)가 쓴 『별을 찾아 떠난 여행(Ami, Child of the Stars)』은 1986년에 초판되자마자 스페인어권 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책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와 많은 나라의 교육 전문가들의 추천 도서가 되었다.

홀리오 카르데나스 사형/ 페루 아레키파 (원문 스페인어)

우주인과 친구가 된 소년 페드로(Pedro)의 이야기를 담은 『별을 찾아 떠난 여행』은 높은 이상과 꿈, 사랑의 품성을 지닌 채 우리 자신과 다른 세계들의 경이롭고 매혹적인 많은 차원을 인지할 수 있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위해 씌어졌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연령과 나이에 상관없이 이 둥글고 아름다운 지구에 거주하는 미래의 후계자로서 형제들 간에 어떠한 차별도 없는 새로운 지구를 건설할” 어린이들의 큰 공감을 산다.

주인공과 다른 외계 친구들의 이야기는 내적인 사색, 평화, 영적인 고양감, 우주 법칙에 대한 이해 등 작가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를테면 이 이야기는 외계인의 방문, 우주 비밀의 공개, 행성 간의 형제애, 황금시대 등의 상황을 그리고 있으며 다른 행성 존재들의 채식에 대한 관점, 신에 대한 믿음, 그들의 명상 수행, 그리고 우주에서 고도로 발달된 세계는 모두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또한 우리 문명에 대한 다른 세계 존재들의 태도, 지구 파괴의 가능성, 각 행성의 영적 수준, 업력의 작용과 같은 흥미로운 주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입문’을 받아야만 즐길 수 있는

음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 아미와 페드로의 대화를 통해 작가는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재치 있는 문체를 사용하여 모든 문명의 고귀한 이상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페드로는 처음에 ‘화성인’에 대한 잘못된 관점 때문에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언제 그들이 지구를 침략해 식민지로 만들 것인지 알고 싶어한다. 놀랍게도 아미는 그런 생각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한 행성이 나쁜 사람들로 가득 차면 먼저 자기들끼리 파괴하게 된다고 얘기해 준다. “옛날 옛적, 수천 년 전에 지구상에는 지금 너희 것과 비슷한 문명이 있었지만 그들의 과학적 수준이 사랑의 수준을 훨씬 능가해서 차이가 나자 피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별을 찾아 떠난 여행』에서는 채식을 포함해서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와 선의에 기초하지 않은 문명은 크게 진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페드로와 아미가 우주선을 타고 여행하던 어느 날 밤, 아미는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페드로의 집을 보다가 페드로의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준비한 음식에 고기 조각이 있는 것을 보고는 충격을 받는다. 아미는 “우웁!” 하고

토할 듯하며 말한다. “너희는 어떻게 동물의 시체를 먹을 수 있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자기 음식을 본 페드로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고기를 먹지 못한다.

이 책에서는 신에 대한 외계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페드로가 신을 수염이 길고 긴 옷을 입은 노인으로 상상하자 우주인 친구 아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준다. “신은 인간의 모습을 하지도 않았고 형태도 없어. 너나 나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분은 무한한 존재이자 순수한 창조적 에너지이시며... 순수한 사랑이야.”

얘기는 신에 대한 외계인들의 개념에서 외계인들의 영적 수행으로 넘어가 다른 세계의 존재들도 신과 사랑에 대해 명상한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아미의 행성 같은 경우, 신의 이름은 ‘사랑’이다. 즉 신과 사랑의 개념이 같은 용어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아미는 이에 대해 “이들의 영적 지수가 약 천 정도 되지만, 사랑에 집중해야 2천을 넘을 수 있어. 지금의 너나 나로서는 갈 수 없는 다른 세계들도 있는데, 그곳에는 지수가 1만이 넘는 존재들이 머물지. 그들은 태양의 존재들로 거의 순수한 사랑이야.” 하고 말한다.

여행을 하면서 아미와 페드로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우주에서 고도로 진보한 세계는 모두 사랑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다. 다시 아미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다. “진화라는 것은 사랑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해. 높이 진보한 존재들일수록 더욱더 사랑을 경험하고 전달하게 돼. 모든 존재가 진정으로 위대해지고 왜소해지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사랑지수로 결정돼. 만약 너희가 사랑이 우주 법칙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한

가족처럼 단결하고 사랑에 따라 일해 나간다면 너희 지구인은 계속해서 존속하게 될 거야.”

마지막으로 『별을 찾아 떠난 여행』은 업의 함축된 의미에 대해서도 거론한다. “사랑에 위배되는 행위는 각 양각색의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 사고를 당한다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다거나 ‘불운’을 겪는 등 도처에서 볼 수 있는 그 많은 고통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법칙을 어긴 대가인 거야. 이것 말고도 다른 많은 방법들도 있고.”

그러면 자신이 영적으로 진보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에 아미는 페드로에게 설명한다. “네가 높이 진화할수록 너는 더욱더 아이처럼 될 거야. 이러한 세계에는 지금 여기 같은 곳이 많이 있어. 어른의 영혼은 또한 어린이의 영혼이기도 해. 우리는 놀아야 하고 환상과 창조가 필요해. 우주보다 더 큰 게임, 환상, 창조는 없는 거야. 그 창조주는 사랑이란단.”

위에 언급된 이야기들은 『별을 찾아 떠난 여행』 중에서 스승님의 가르침과 상관된 일부 내용이다. 이 책을 읽고 있노라면 최고의 전문 교사인 스승님과 함께 쾌속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일주하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상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승님께 입문해 거듭날 수 있었고 어린이의 순수함을 간직한 채 사랑 안에서 진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관음 수행자들은 정말 행운아다! 게다가 이 별에 사는 모든 이들이 평화롭고 영적으로 고양된 황금시대로 들어서도록 돕고 또한 스승님의 가르침과 『별을 찾아 떠난 여행』과 같은 책들을 통해 우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기회도 갖고 있으니 말이다. ✨

*스페인어판 『별을 찾아 떠난 여행』 전문을 읽으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2.11argentina.com:8080/BOOKS/AMI_01.zip

*UFO와 다른 행성에 관한 청하이 무상사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www.Godsdirectcontact.com/topics/et/et.html>
<http://www.Godsdirectcontact.com/teachings/LECTUREmystery2.html>
<http://www.Godsdirectcontact.com/topics/goldera/et.html>
<http://www.Godsdirectcontact.com/topics/goldera/planet.html>
<http://www.Godsdirectcontact.com//quanyin/hm/075/h.html>



우주 여행과 채식

미국 뉴스그룹 (원문 영어)

음식은 우주 비행사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한다. 장기간 우주에서 머물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잘 짜여진 다양한 메뉴가 중요하다. 미르 우주 정거장의 일부 우주 비행사들이 그랬듯이 단조로운 식단은 심리적인 문제와 심각한 체중 감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임무 수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주 비행사들의 경우에는 지구에서 재배되고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데, 하루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량은 약 4파운드 정도로 제한된다. 그러나 화성 탐사와 같은 장기간의 우주 여행에서는 음식 준비와 저장이 보다 큰 문제가 된다. 화성 여행은 가는 데만 6개월 가량이 걸린다. 우주 비행사들이 연구를 위해 화성에서 체류하는 1년 정도의 기간을 더한다면 총 2년 동안 지구를 떠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루에 4파운드만 먹는다고 해도 승무원 여섯 명에게 필요한 식량은 17,000파운드가 넘는다.

미리 포장된 어마어마한 양의 우주 식량을 가져가거나 발사하는 데 드는 엄청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성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우주선과 화성에서 먹을 것을 재배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우주 환경 속에서 곡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곡물과 채소는 수

경법(水耕法)으로 알려진 방식으로 토양이 아닌 영양액 속에서 재배될 것이다.

장기간의 우주 여행 동안 곡물과 식물을 재배하는 건 가능한 일이지만, 고기나 유제품을 얻기 위해 우주선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물을 기르려면 많은 공간이 필요할뿐더러 우주선이나 우주 정거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1파운드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략 10파운드의 옥수수가 필요하다. 또한 우주선에서 동물을 기르면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장기간의 우주 여행을 위해서는 채식 위주의 식단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몇 년 전 미 항공우주국(NASA)의 지원을 받아 뉴욕 코넬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3년간의 연구 끝에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200개의 조리법을 개발했다. 이 조리법은 밀과 쌀, 콩, 채소 등의 채식 성분을 위주로 한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은 모두 인공 광선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우주 온실에서 수경 재배될 수 있다. 지방, 농축 조미료, 대개 양념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비채식 식품과 유제품, 그리고 초콜릿과 같은 약간의 사치품 등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열량만 지구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사용한다. 연구의 목적은 영양이 풍부하고 식욕을 돋우면서 지구에서 먹는 음식과

유사한 우주 요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16명의 지원자들이 30일 동안 철저히 채식만 하면서 이 조리법의 맛을 시험했는데, 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들은 양상추와 토마토에다 지구에서 만들어진 치즈를 뿌린 밀고기 타코스, 당근으로 만든 채식 닭다리, 인도네시아 템페 햄버거, 콩을 곁들인 바질 페스토, 파스타 프리마베라, 두부 치즈 케이크 등 입맛을 돋우는 메뉴를 시식했고 건강과 영양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였다. 30일 동안 채식을 한 후 좋아졌다고 느낀 한 지원자는 평생 동안 채식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구에서 겪는 건강 문제가 우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채식의 영양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 과학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주 식량이 점점 더 채식화됨에 따라 칼슘과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고 에너지가 높은 식물 자원이 가장 바람직한 음식이 되리란 사실은 이미 명백해졌다.” 따라서 우주 비행사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채식의 영양에 대한 연구 성과가 큰 이로움을 줄 것이라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

실제로 몇몇 우주 비행사들은 채식주의자이다. NASA의 우주 비행사이자 임무 전문가 지원자인 티모시 J. 크리머(Timothy J. Creamer) 중령은 채식주의자이며, 2003년 콜럼비아호 공중 폭발 사고로 순직한 우주 비행사 칼파나 차왈라(Kalpana Chawala)도 완전 채식주의자였다. 이 외 우주에서 900시간 넘게

보낸 활동적인 우주 비행사인 자니스 보스 박사(Dr. Janice Voss)도 채식주의자이다. 전문 훈련을 받은 이들은 혹독한 우주 비행사 훈련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그들에게는 장기간 우주 여행에서 고기 없이 식사하는 것이 평소 식사나 다름없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채식으로 바꾸는 것이 일부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시식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을 놓고 보자면, 색다른 맛에 익숙해지는 정도가 문제됐을 뿐이다. “시식 실험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두유나 쌀 음료와 같은 유제품 대체 식품을 좋아하지 않았습다. 하지만 실험 대상자들은 규칙적으로 그런 음식을 먹게 되자 거기에 익숙해졌고 잘 받아들여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채식 식단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코넬 대학교 농업생물공학과 진 헌터(Jean Hunter) 부교수의 말이다.

지구 자체도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비행하는 우주선과 다를 게 없다. 그러므로 ‘지구 우주선’에서 채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비심을 위해서뿐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도 중요하다. 특히 모두가 채식을 한다면 기아나 환경 오염과 같은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므로 더더욱 그렇다. 스승님의 은총과 더불어 동수들과 다른 채식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채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

참고 자료:

<http://chainreaction.asu.edu/solarsystem/digin/cuisine.htm>
<http://www.sciencedaily.com/releases/1998/01/980121154146.htm>
<http://www.news.cornell.edu/releases/April00/spacefood.diet.ssl.html>
<http://www.medicinalfoodnews.com/vol06/issue3/space>
<http://www.spacedaily.com/news/food-00b.html>
<http://www.foodreference.com/html/fastronaut.html>
<http://www.okturningpoint.org/wtw/WTWPassport.pdf>



전세계 엘리트 채식주의자

배우 및 영화 스타

로잔나 아퀘트(Rosanna Arquette: 미국 여배우), 리처드&레슬리 바크(Richard & Leslie Bach: 두 사람 다 미국인으로 리처드는 작가, 레슬리는 여배우), 앤저스 바넷(Angus Barnett: 영국 배우), 알렉산드라 바스테도(Alexandra Bastedo: 영국 여배우), 메레디스 박스터(Meredith Baxter: 미국 여배우), 모린 비에티(Maureen Beattie: 영국 여배우), 더크 베네딕트(Dirk Benedict: 미국 배우), 산드라 버킨(Sandra Berkin: 영국 여배우), 트레이시 빙햄(Traci Bingham: 미국 여배우), 크리스토퍼 블레이크(Christopher Blake: 영국 배우), 질리언&게일 블레크니(Gillian & Gayle Blakeney: 호주 여배우), 피터 보그다노비치(Peter Bogdanovich: 미국 영화감독), 리사 보넷(Lisa Bonet: 미국 여배우), 트레이시 브레빈(Tracy Brabin: 영국 여배우, 작가), 캐서린 브레드쇼(Cathryn Bradshaw: 영국 여배우), 루시 브라이어스(Lucy Briers: 영국 여배우), '다운타운(Downtown)'의 줄리 브라운(Julie Brown: 영국 여배우), 커크 카메론(Kirk Cameron: 미국 배우), 댄 카스텔라네타(Dan Castellana: 미국 배우, 작가), 줄리 크리스티(Julie Christie: 영국 여배우), 레이첼 리 쿡(Rachael Leigh Cook: 미국 영화배우 겸 TV 배우, 모델), 보 코어(Bo Corre: 스웨덴 여배우), 제임스 크롬웰(James Cromwell: 미국 배우), 세라 크로(Sara Crowe: 영국 여배우), 피터 커싱(Peter Cushing: 영국 배우), 어맨다 딕슨(Amanda Dickinson: 영국 여배우), 마두리 딕시(Madhuri Dixit: 인도 여배우), 제니 도니슨(Jenny Donnison: 영국 여배우), 베티 드라이버(Betty Driver: 영국 여배우), 마이크 파렐(Mike Farrell: 미국 배우), 팜 페리스(Pam Ferris: 영국 여배우), 제롬 플린(Jerome Flynn: 영국 배우), 피오나 풀러튼(Fiona Fullerton: 나이지리아 여배우), 제니 가스(Jennie Garth: 미국 여배우), 세라 길버트(Sara Gilbert: 미국 여배우), 셰일라 기쉬(Sheila Gish: 영국 여배우), 데보라 그랜트(Deborah Grant: 영국 여배우), 질 그리나서(Jill Greenacre: 영국 여배우), 우디 해럴슨(Woody Harrelson: 미국 배우), 나이젤 호손(Nigel Hawthorne: 영국 배우, 제작자), 셰리 휴슨(Sherrie Hewson: 영국 여배우), 레이나 제임스(Reina James: 영국 여배우), 진 카셈(Jean Kasem: 미국 여배우), 셰릴 케네디(Cheryl Kennedy: 영국 여배우), 자레트 레논(Jarrett Lennon: 미국 배우), 제니 린덴(Jennie Linden: 영국 여배우), 레이첼 린제이(Rachel Lindsay: 미국 여배우), 조안나 럼리(Joanna Lumley: 영국 여배우), 칼 메카닌치(Cal Macaninch: 영국 배우), 버지니아 메드슨(Virginia Madsen: 미국 여배우), 샤로트 마틴(Charlotte Martin: 미국 여배우), 빌 메이너드(Bill Maynard: 영국 배우, 코미디언), 폴 맥간(Paul McGann: 영국 배우), 글렌다 맥케이(Glenda McKay: 영국 여배우), 버지니아 맥켄너(Virginia McKenna: 영국 여배우), 루 맥클라나한(Rue McClanahan: 미국 여배우), 어맨다 밀링(Amanda Mealing: 영국 여배우), 스파이크 밀건(Spike Milligan: 인도 배우), 헤일리 밀스(Hayley Mills: 영국 여배우), 제시카 무스챔프(Jessica Muschamp: 호주 출신 영국 여배우), 스티븐 노스(Stephen North: 영국 배우), 사이먼 오브라이언(Simon O'Brien: 영국 배우), 헤이즐 오코너(Hazel O'Connor: 영국 여배우 겸 작곡가), 모린 오페럴(Maureen O'Farrell: 영국 여배우), 샤우나 오그래디(Shaunna O'Grady: 호주 여배우), 케이트 오마라(Kate O'Mara: 영국 여배우), 캐서린 옥센버그(Catherine Oxenberg: 미국 여배우), 안느 파릴로드(Arne Parillaud: 프랑스 여배우), 알렉산드라 폴(Alexandra Paul: 미국 여배우), 안소니 퍼킨스(Anthony Perkins: 미국 배우), 폴리 퍼킨스(Polly Perkins: 영국 여배우), 레아 펄만(Rhea Perlman: 미국 여배우 겸 제작자), 맨디 페리먼트(Mandy Perryment: 영국 여배우), 리버 피닉스(River Phoenix: 미국 배우), 트레이시 폴렌(Tracey

Pollen: 미국 여배우), **파멜라 파워**(Pamela Power: 영국 여배우), **재클린 레딘**(Jacqueline Reddin: 아일랜드 여배우), **조 레갈부토**(Joe Regalbuto: 미국 배우), **린다 리건**(Linda Regan: 영국 여배우), **에릭 리처드**(Eric Richard: 영국 배우), **라이너스 로체**(Linus Roache: 영국 배우), **아비게일 로키슨**(Abigail Rokison: 영국 여배우), **캐롤 로일**(Carol Royle: 영국 여배우), **제니 시그로브**(Jenny Seagrove: 영국 여배우), **마틴 쇼**(Martin Shaw: 영국 배우), **캐시 쉽튼**(Cathy Shipton: 영국 배우), **알리시아 실버스톤**(Alicia Silverstone: 미국 여배우 겸 제작자), **존 고든 싱클레어**(John Gordon Sinclair: 영국 배우), **마리나 설티스**(Marina Sirtis: 영국 여배우), **롭 스펜드러브**(Rob Spendlove: 영국 배우), **이멜다 스타튼**(Imelda Staunton: 영국 여배우), **에릭 스톨즈**(Eric Stolz: 미국 배우), **데이비드 툴리스**(David Thewlis: 영국 배우, 감독 겸 작가), **조나단 테일러 토마스**(Jonathan Taylor Thomas: 미국 배우 겸 제작자), **리타 터싱햄**(Rita Tushingham: 영국 여배우), **매튜 본**(Matthew Vaughan: 영국 배우), **팀 빈센트**(Tim Vincent: 영국 배우), **크리스티나 와그너**(Kristina Wagner: 미국 여배우), **소피 워드**(Sophie Ward: 영국 여배우), **데니스 위버**(Dennis Weaver: 미국 배우), **티코 웰즈**(Tico Wells: 미국 배우), **루스 화이트헤드**(Ruth Whitehead: 영국 여배우), **스파이스 윌리엄스**(Spice Williams: 미국 여배우), **엠마 레이**(Emma Wray: 영국 여배우), **그레첸 와일러**(Gretchen Wyler: 미국 여배우).

팝 스타 및 음악인

에브니게이션(Abnegation: 미국 펑키 락 밴드), **브라이언 아담스**(Bryan Adams: 캐나다 싱어 송라이터, 기타리스트), **데이먼 알반**(Damon Albarn: 영국 가수, 건반악기 연주자), **존 앤더슨**(Jon Anderson: 영국 가수, 솔로 아티스트), **피오나 애플**(Fiona Apple: 미국 싱어 송라이터), **조안 알마트레이딩**(Joan Armatrading: 영국 싱어 송라이터, 기타리스트), **게리 발로우**(Gary Barlow: 영국 싱어 송라이터, 제작자), **마틴 바레**(Martin Barre: 영국 기타리스트), **셜리 바세이**(Shirley Bassey: 영국 가수), **빌러브드**(The Beloved: 영국 전자음악 그룹), **노먼 블레이크**(Norman Blake: 스코틀랜드 음악인, 작곡가, 보컬, 기타리스트), **블러**(Blur: 영국 락 밴드), **마이클 볼튼**(Michael Bolton: 미국 싱어 송라이터), **엘키 브룩스**(Elkie Brooks: 영국 가수), **피터 버크**(Peter Buck: 미국 기타리스트), **찰리 버칠**(Charlie Burchill: 스코틀랜드 기타리스트), **케이트 부쉬**(Kate Bush: 영국 싱어 송라이터), **테리 기저 버틀러**(Terry 'Geezer' Butler: 영국 기타리스트), **B52s**(미국 락 밴드), **부-야 트라이브**(Boo-Yaa TRIBE: 미국 랩 그룹), **몽세라 카바예**(Montserrat Caballe: 스페인 오페라 소프라노), **비비안 캠펔**(Vivian Campbell: 아일랜드 락 기타리스트), **카르카스**(Carcass: 영국 락 메탈 밴드), **캡틴&테닐**(Captain & Tennille: 미국 팝 가수 부부), **벨린다 칼라일**(Belinda Carlisle: 미국 보컬), **게리 클레일**(Gary Clail: 영국 가수), **닐 코들링**(Neil Codling: 영국 싱어 송라이터), **제시카 코디**(Jessica Cody: 캐나다 보컬), **필 콜린**(Phil Collen: 영국 기타리스트), **컨솔러데이티드**(Consolidated: 미국 공연 그룹), **줄리언 코프**(Julian Cope: 영국 락 가수, 작가), **엘비스 코스텔로**(Elvis Costello: 영국 음악인, 싱어 송라이터), **세라 크랙넬**(Sarah Cracknell: 영국 팝 가수), **비버리 크레이븐**(Beverly Craven: 영국 음악인), **피터 쿠나**(Peter Cunnah: 아일랜드 싱어 송라이터), **딕 데일**(Dick Dale: 미국 서프락의 개척자, 기타리스트), **존 댁크워스**(John Dankworth: 영국 재즈 작곡가, 공연가), **데이브 데이비스**(Dave Davies: 영국 가수, 기타리스트), **캐롤 데커**(Carol Decker: 영국 가수), **브레드 델프**(Brad Delp: 미국 보컬), **캐시 데니스**(Cathy Dennis: 영국 싱어 송라이터, 녹음 제작자), **데스리**(Des'ree: 영국 팝 가수), **마이클 다이아몬드**(Michael Diamond: 미국 드럼 연주자, 가수), **코린 드레위리**(Corinne Drewery: 영국 가



수), 주디스 더햄(Judith Durham: 호주 가수), 어스 크라이시스(Earth Crisis: 미국 스트레이트 엣지 밴드), 멜리사 에더리지(Melissa Etheridge: 미국 락 음악인), 줄리 펠릭스(Julie Felix: 미국 포크 락 녹음 음악인), 피니 트라이브(Fini Tribe: 스코틀랜드 전자락 댄스 음악가), 피터 프레임(Peter Frame: 영국 음악사학자), 마이클 프랭크(Michael Franks: 미국 재즈 싱어 송라이터), 저스틴 프리시먼(Justine Frischmann: 영국 가수, 기타리스트), 에드가 프로이제(Edgar Froese: 러시아 예술가, 전자음악 개척자), 푸가지(Fugazi: 미국 스트레이트 엣지 밴드), 피터 가브리엘(Peter Gabriel: 영국 음악가), 데이비드 겐지(David Gedge: 영국 음악인, 작사작곡가), 보이 조지(Boy George: 아일랜드 가수, 싱어 송라이터), 디지 길레스피(Dizzie Gillespie: 미국 재즈 트럼펫 연주가, 가수 겸 작곡가), 게리 글리터(Gary Glitter: 영국 락·팝 가수), 케빈 가들리(Kevin Godley: 영국 음악인, 제작자), 데이브 굿맨(Dave Goodman: 영국 제작자), 에디 그랜드(Eddie Grant: 가이아나 출신의 음악인), 마틴 리 고어(Martin Lee Gore: 영국 싱어 송라이터, 기타리스트), 오마르 하킴(Omar Hakim: 미국 드러머, 음악인), 커크 햄머트(Kirk Hammett: 미국 기타리스트), 폴리 진 하비(Polly Jean Harvey: 영국 싱어 송라이터), 줄리아나 하트필드(Juliana Hatfield: 미국 기타리스트, 작사작곡가), 키스티 호크쇼(Kirsty Hawkshaw: 영국 여성 음악인, 작사작곡가), 토니 히кс(Tony Hicks: 영국 기타리스트), 도우 호스트라(Doug Hoekstra: 미국 싱어 송라이터), 수잔나 홉스(Susannah Hoffs: 미국 음악인, 여배우), 스티브 하우(Steve Howe: 영국 기타리스트), 크리스티 하이드(Chrissie Hynde: 미국 락 음악인), 빌리 아이돌(Billy Idol: 영국 하드락 음악인), 에디 잭슨(Eddie Jackson: 미국 베이스리스트), 조 잭슨(Joe Jackson: 영국 음악인), 라토야 잭슨(LaToya Jackson: 아프리카계 미국 팝스타), 제임스(James: 영국 밴드), 웬디 제임스(Wendy James: 영국 가수 겸 작곡가), 다니엘 존스(Daniel Johns: 호주 가수, 기타리스트, 작곡가), 에릭 존슨(Eric Johnson: 미국 녹음 예술인), 하워드 존스(Howard Jones: 영국 싱어 송라이터), 마틴&게리 켐프(Martin & Gary Kemp: 영국 행위 예술가), 짐 커(Jim Kerr: 스코틀랜드 가수, 작사가), 닉 커쇼(Nik Kershaw: 영국 싱어 송라이터), 글래디스 나이트(Gladys Knight: 미국 R&B 가수), 에드워드 코왈츠키(Edward Kowalczyk: 미국 가수), 크래프트베르크(Kraftwerk: 독일 음악 그룹), 케이디 랭(K D Lang: 캐나다 싱어 송라이터), 애니 레녹스(Annie Lennox: 스코틀랜드 락 음악인, 보컬), 리빙 컬러(Living Colour: 미국 하드락 밴드), 르네 로비치(Lene Lovich: 미국 가수), 윌리 엠(Willy M: 영국 음악인), 마릴린(Marilyn: 자메이카 출신의 락 음악인), 조니 마르(Johnny Marr: 영국 음악인, 가수), 미트로프(Meat Loaf: 미국 배우 겸 락앤롤 공연 음악인), 나탈리 머천트(Natalie Merchant: 미국 음악인), 모비(Moby: 미국 전자음악인), 래리 물런 주니어(Larry Mullen Jr.: 아일랜드 드러머), 무타바루카(Mutabaruka: 자메이카 시인), 크리스 노보셀릭(Chris Novoselic: 크로아티아계 미국 락 음악인), 제이슨 오렌지(Jason Orange: 영국 음악인), 오지 오스본(Ozzy Osborne: 영국 가수, 솔로 아티스트), 도리스 퍼슨(Doris Pearson: 영국 음악인), 린다 페리(Linda Perry: 미국 음악인, 녹음 제작자), 스티브 페리(Steve Perry: 미국 싱어 송라이터), 키스 포트저(Keith Potger: 스리랑카 기타리스트, 보컬), 레벨 MC(Rebel MC: 영국 팝 래퍼), 마리스 로블스(Marisa Robles: 영국 하프 연주가), 리키 로켓(Rikki Rocket: 영국 락 그룹), 팀 로저스(Tim Rogers: 호주 보컬, 솔로 아티스트), 톰 스클즈(Tom Scholz: 미국 가수, 기타리스트), 샌디 쇼(Sandie Shaw: 영국 가수), 셸터(Shelter: 미국 락 밴드), 캡틴 센서블(Captain Sensible: 영국 가수, 기타리스트), 샤먼(The Shamen: 스코틀랜드 익스페리먼틀 전자음악 밴드), 시니타 레넷 말론(Sinitta Renet Malone: 미국 가수), 시옥시 시옥스(Siouxie Sioux: 영국 가수), 그레이스 슬릭(Grace Slick: 미국 가수), 헤더 스몰(Heather Small: 영국 소울 가수), 지미 소머빌(Jimmy Somerville: 스코틀랜드 팝가수), 저트 테이트(Geoff Tate: 미국 가수), 리처드 톰슨(Richard Thompson: 영국 싱어 송라이터), 타니타 티카람(Tanita Tikaram: 독일 팝·포크 싱어 송라이터), 파린 우엘라움(Farin Urlaub: 독일 가수, 기타리스트), 스티브 바이(Steve Vai: 미국 기타리스트

트, 녹음 제작자), **에디 베더**(Eddie Vedder: 미국 가수, 작사가), **찰리 와츠**(Charlie Watts: 영국 드러머), **제인 웨이들린**(Jane Weidlin: 미국 기타리스트), **앨런 와일더**(Alan Wilder: 영국 전자음악 음악인, 녹음 제작자), **웬디 윌리엄스**(Wendy O. Williams: 미국 가수), **‘위어드’ 알 양코빅**(‘Weird’ Al Yankovic: 미국 음악인, 작사가), **야즈**(Yazz: 영국 팝가수), **벤자민 제파니아**(Benjamin Zephaniah: 영국 작가 겸 시인).

TV 스타

안드레아 아놀드(Andrea Arnold: 영국 여배우, 감독), **밥 베이커**(Bob Barker: 미국 TV 진행자), **마리안 찬터**(Marian Chanter: 영국 게임쇼 ‘크립튼 팩터’ 최초의 여성 승자), **필 쿨**(Phil Cool: 영국 코미디언, 성대 모사 연예인), **바바라 에드워드**(Barbara Edwards: 영국 TV 기상 예보관), **앵젤라 그루쉬젠**(Angela Groothuizen: 네덜란드 TV 방송 사회자), **래리 해그먼**(Larry Hagman: 미국 배우, 감독), **앙투아네트 헤르센베르그**(Antoinette Hertszenberg: 네덜란드 TV 방송 사회자), **사이먼 히슨**(Simon Hickson: 영국 배우, 작가), **비올라 홀트**(Viola Holt: 네덜란드 TV 방송 사회자), **하이네 휘스먼**(Hennie Huisman: 네덜란드 쇼 진행자), **가레스 존스**(Gareth Jones: 영국 TV 쇼 진행자), **다이앤 루이스 조던**(Diane-Louise Jordan: 영국 TV 진행자, 제작자), **페니 주노**(Penny Junor: 영국 작가, 기자), **리키레이크**(Ricki Lake: 유대계 미국 여배우, 토크쇼 진행자), **조 롱손**(Joe Longthorne: 영국 가수, 배우), **돈 맥클린**(Don McLean: 미국 가수, 작사 작곡가), **케빈 닐런**(Kevin Nealon: 미국 코미디언, 배우), **레너드 니모이**(Leonard Nimoy: 미국 배우, 감독, 제작자), **프레드 로저스**(Fred Rogers: 미국 어린이 쇼 진행자), **피터 사이먼**(Peter Simon: 영국 TV 진행자), **존 심슨**(John Simpson: 영국 TV 기자), **리사 심슨**(Lisa Simpson: TV 애니메이션 주인공), **줄리 스나이더**(Julie Snyder: 캐나다 TV 진행자), **사이 스펠링**(Sy Sperling: 남성 헤어컬럼 회장), **조 스티븐스**(Jo Stevens: 미국 배우), **조나단 테일러 토마스**(Jonathan Taylor Thomas: 미국 배우), **웬디 터너**(Wendy Turner: 영국 TV 진행자), **메리 타이러 무어**(Mary Tyler Moore: 미국 여배우, 코미디언), **메이틀랜드 워드**(Maitland Ward: 미국 여배우), **바네사 워윅**(Vanessa Warwick: 영국 감독, 여배우), **빅토리아 우드**(Victoria Wood: 영국 코미디언), **윌리엄 윌러드**(William Woollard: 영국 배우).

라디오 스타

토니 블랙번(Tony Blackburn: 영국 DJ 음반 수상자), **잭키 브램벌스**(Jackie Brambles: 영국 TV와 라디오 진행자), **캐시 카셈**(Casey Kasem: 미국 라디오 진행자, 성우), **크리스 미첼**(Chris Mitchell: 미국 라디오 DJ), **존 필**(John Peel: 영국 DJ, 기자), **제니스 롱**(Janice Long: 영국 라디오 방송 진행자), **다이앤 옥스베리**(Dianne Oxberry: 영국 라디오 기상 예보관), **주디 스파이어스**(Judi Spiers: 영국 방송 진행자), **클레어 스티지스**(Claire Sturgess: 영국 라디오 DJ), **데이브 리 트레비스**(Dave Lee Travis: 영국 배우, DJ), **셸턴 왈덴**(Shelton Walden: 미국 라디오 제작자, 쇼 진행자), **론 데 리요크**(Ron de Rijk: 네덜란드 스포츠 캐스터), **피에르 로버트**(Pierre Robert: 미국 DJ).

스포츠 스타



비 제이 암스트롱(B J Armstrong: 미국 농구 스타), 알 베클스(Al Beckles: 미국 보디빌더), 피터 버워쉬(Peter Burwash: 캐나다 출신으로 장시간 운동과 동기 부여에 대한 주제로 강연하는 강사, 세계적인 테니스 코치), 안드레아스 콜링(Andreas Cahling: 스웨덴 보디빌더), 크리스 캠프벨(Chris Campbell: 미국 세계 레슬링 챔피언), 샬리 이스톨(Sally Eastall: 영국 마라톤 선수), 클레어 프란시스(Clare Francis: 호주 선원), 루이스 프레이트스(Louis Freitas: 브라질 보디빌더), 캐롤 구드(Carol Gould: 영국 마라톤 선수, 영국 도로 경주에서 수 차례 우승), 에스텔 그레이(Estelle Gray: 미국 사이클링 선수), 루스 하이드리히(Ruth Heidrich: 미국 철학 박사 겸 건강교육학자, 철인 경기 3차례 참가), 샬리 하이버드(Sally Hibberd: 영국 여성 산악 자전거 챔피언), 샤론 하운셀(Sharon Hounsell: 웨일스 보디빌딩 챔피언), 데스몬드 하워드(Desmond Howard: 미국 프로 미식축구 선수), 로저 휴스(Roger Hughes: 웨일스 스키 챔피언), 데이빗 존슨(David Johnson: 미국 농구 코치), 캐시 존슨(Kathy Johnson: 미국 체조 선수), 앨런 존스(Alan Jones: 영국 스키 점프 선수), 킬러 코왈스키(Killer Kowalski: 폴란드계 캐나다 프로 레슬링 선수), 도니 레론드(Donnie LaLonde: 캐나다 프로 권투 선수), 토니 라루사(Tony LaRussa: 미국 야구팀 감독), 실켄 라우먼(Silken Laumann: 캐나다 조정 챔피언), 주디 레던(Judy Leden: 영국 세계 행글라이더 챔피언), 마브 리베이(Marv Levey: 미국 미식축구 코치), 유타 뮐러(Jutta Muller: 독일 윈드서핑 월드컵 챔피언), 잭 메이틀랜드(Jack Maitland: 영국 철인 3종 경기 선수 겸 코치), 셰릴 마렉(Cheryl Marek: 미국 사이클링 선수), 레슬리 막스(Leslie Marx: 미국 국내 경기에서 2차례 우승한 펜싱 선수), 크리스티 맥더모트(Kirsty McDermott: 영국 마라톤 선수), 로버트 밀러(Robert Millar: 스코틀랜드 프로 사이클링 선수), 파보 누르미(Paavo Nurmi: 핀란드 장거리 육상 선수, 올림픽 12관왕), 빌 펄(Bill Pearl: 미국 보디빌더, 미스터 아메리카), 안소니 필러(Anthony Peeler: 미국 농구 선수), 데비 스페드 헤어링(Debbie Spaeth-Herring: 미국 역도 선수), 조나단 스피elman(Jonathan Speelman: 영국 체스 선수, 3차례 우승), 자끄 본(Jacque Vaughn: 미국 프로 농구 선수), 유스테스 마일스(Eustace Miles: 영국 테니스 선수, 10차례 우승).

작가, 철학자, 과학자

스콧 애덤스(Scott Adams: 미국 작가, 예술가), 루이자 메이 알코트(Louisa May Alcott: 미국 소설가), 클라이브 베이커(Clive Barker: 영국 작가, 감독, 시각 예술가),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 영국 시인, 화가), 베르크 브레스드(Berke Breathed: 미국 만화가), 샤로트 브론테(Charlotte Bronte: 영국 소설가), 헨리 하임리히 박사(Henry Heimlich M.D.: 미국 의사), 크리슈나무르티 지두(Krishnamurti Jiddu: 인도 영적 지도자),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 독일 작가), 칼라 렌(Carla Lane: 영국 TV 작가), 밀턴(Milton: 영국 시인), 앨런 무어(Alan Moore: 영국 희극 작가), 세르자 레이나드 데 라 페리에르(Serge Raynaud de la Ferriere: 프랑스 철학자, '세계 형제애' 주창자), 루스 렌델(Ruth Rendell: 영국 작가), 업턴 싱클레어(Upton Sinclair: 미국 작가), 피터 싱어(Peter Singer: 호주 인도주의자, 철학자), 콜린 스펜서(Colin Spencer: 영국 음식 저널리스트), 찬드라쉬카르 수브라마니안(Chandrashekar Subrahmanyam: 인도 출신의 미국 천체물리학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 엠마누엘 스웨덴보그(Emanuel Swedenborg: 스웨덴 과학자, 철학자, 종교학자), 앨리스 워커(Alice Walker: 아프리카 출신의 미국 작가, 여성운동가), 앨런 와츠(Alan Watts: 영국 철학자, 비교종교학자), H.G. 웰스(H.G. Wells: 영국 작가),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 영국 낭만파 시인).

역사적인 채식주의자와 채식주의자

클라라 바턴(Clara Barton: 미국 적십자 창립자), 애니 베전트(Annie Besant: 영국 신지학 학자, 여성운동가, 작가, 연설가), 제너럴 윌리엄 부스(General William Booth: 구세군 창립자 겸 1대 장군), 페너 브룩웨이(Fenner Brockway: 영국 반전 운동가, 정치가), 루퍼트 브룩(Rupert Brooke: 영국 시인), 케사르 차베스(Cesar Chavez: 멕시코계 미국인 농부, 노동운동 지도자 겸 사회운동가), 성(聖) 요한 크리소스토ム(St. John Chrysostom: 시리아 주교, 신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회 초대 회원), 스텍포드 크립스 경(Sir Stafford Cripps: 영국 노동당 정치가), 존 하비 켈로그 박사(Dr John Harvey Kellogg: 미국 의사, W K 켈로그의 형), 라마르틴(Lamartine: 프랑스 작가, 시인, 정치가), 마틴 루터(Martin Luther: 독일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수도사, 성직자, 종교개혁가), 차이타니아 마하프라부(Caitanya Mahaprabhu: 인도 성자), 마하비라(Mahavira: 인도 자이나교 창시자), 몽테뉴(Montaigne: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 작가), 바바라 무어(Barbara Moore: 미국 주(駐) 니카라과 대사), 카나크야 판디트(Canakya Pandit: 인도 철학자, 수상), 아이작 피트먼 경(Sir Isaac Pitman: 영국 피트먼 속기법 발명가), 오리겐(Origen: 이집트 학자, 기독교 신학자), 플로티누스(Plotinus: 신플라톤주의 창시자),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 영국 시인), 포퍼리(Porphyry: 시리아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박티베단테 스와미 프라후파다(H. H. A.C. Bhaktivedanta Swami Prabhupada: 인도 영성주의자), 일리아 레핀(Ilya Repin: 러시아 예술가), 바브 베이커(Richard St Barbe Baker: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환경 보호론자), 헨리 솔트(Henry Salt: 영국 예술가, 외교관, 이집트 연구가), 쇼펜하우어(Schopenhauer: 독일 철학자), 바네스 네빌 월리스 경(Sir Barnes Neville Wallis: 영국 과학자, 기술자, 발명가), 메리 웹(Mary Webb: 영국 낭만파 소설가), 존 웨슬리(John Wesley: 영국 교회 목사, 기독교 신학자), 엘렌 화이트(Ellen G. White: 미국 작가, 제7안식일 교회 창립자).

모델

앤지 힐(Angie Hill: 미국 여배우, 모델), 캐시 로이드(Kathy Lloyd: 영국 여배우, 모델), 캐리 오티스(Carre Otis: 미국 플러스 사이즈드 패션모델), 래티자 쉬에르(Laetizia Scherrer: 프랑스 모델, 디자이너).

정치가, 사회운동가

제임스 G. 아부레즈크(James G. Abourezk: 미국 상원의원, 국회의원), 토니 뱅크스(Tony Banks: 영국 정치가, 국회의원), 앤드류 바틀렛(Andrew Bartlett: 호주 의회 상원의원), 토니 벤(Tony Benn: 영국 정치가, 국회의원), 앤 캠펠(Anne Campbell: 영국 정치가, 노동당 의원), 첼시아 클린턴(Chelsea Clinton: 미국 전 임 대통령 빌 클린턴의 딸), 해리 코헨(Harry Cohen: 영국 노동당 의원), 빌렘 드레스(Willem Drees: 네덜란드 정치가, 1948년부터 1958년까지 수상 역임), 앤 길먼(Anne Gilman: 영국 정치가), 앤드류 제이콥스(Andrew Jacobs: 미국 국회의원), 카멜 준블렛(Kamel Junblatt: 리비아 국회의원), 모리츠 로이엔베르거(Moritz Leuenberger: 스위스 에너지 전력부 장관), 로버트 루츠(Robert Lutz: 스위스 기업체 간부), 보스 마류크(Vos Marijke: 네덜란드 국회의원), 피에르 머천트(Piers Merchant: 영국 정치인, 국회의원), 알버트

모크히버(Albert Mokhiber: 아랍계 미국 인권운동가), 사다르 발라브하이 파텔(Sardar Vallabhbhai Patel: 인도 초대 내무부장관), P.V. 나라시마 라오(P.V. Narasimha Rao: 1991년부터 1996까지 인도 수상 역임), 필립 러덕(Philip Ruddock: 호주 법무부 장관), 버나드 웨더렐(Bernard Weatherall: 영국 정치가).
명단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르 파리지앵』이 채식 관련 기사를 싣다

조셉 사형/ 프랑스 파리 (원문 프랑스어)

프랑스에서 ‘대안적인 삶’ 전단지를 나눠 주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채식에 관한 주제가 각종 매체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놀랍게도 그 중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 중 하나가 2006년 3월 20일 채식주의에 관한 기사를 싣기도 했다.

『르 파리지앵(Le Parisien)』은 파리 지역에서 독자가 가장 많은 신문이며 주요 지방에서도 인기 있는 신문 중 하나인데, 가장 객관적인 정보와 함께 기사를 까다롭게 선별해 싣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신문에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어렵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채식을 소개하는 기사는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 신문은 일반적인 프랑스인이 좋아하는 음식과 기호를 객관적으로 관찰해 가장 공정하게 보도한다. 지난 25년간 채식주의에 관한 기사가 한 번도 실린 적이 없었고 간접적으로 비취진 적도 없었다는 사실이 그 단적인 예이다. 그런데 채식의 개념을 널리 전하라는 스승님의 애정 어린 지시가 내려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파리 시내에 있는 서너 군데 채식 식당의 맛있는 채식 요리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서는 몇몇 유명인사들이 정기적으로 그 식당을 즐겨 찾는다고 언급해 이 식당들을 대중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장소로 부각시켰다. 그 중에는 우리 동수가 운영하는 채식 식당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중 매체는 대중의 경향을 반영하는 가장 민감한 지표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은 부분으로부터 채식에 대한 세상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



프랑스에서 가장 저명한 매체 중 하나인 『르 파리지앵』이 2006년 3월 20일 채식주의에 대한 기사를 싣다.

다음 명단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는 훌륭한 나라에 있는 연락인과 연락처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연락인이 없다면 우리 본부나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 세계 연락처

P.O.Box 9, Hsihu, Miaoli 36899, Formosa, R.O.C.
P.O.Box 730247, San Jose, CA 95173-0247, U.S.A.

■ 아프리카 ■

- ★ 앙골라: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 ★ 베냉: 센터/ 229-21-383982/ smbenin@yahoo.fr
- ★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센터/ 226-50-341704/ smburkinafaso@yahoo.fr
- ★ 카메룬: 두알라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 ★ 가나: 센터/ 233-277807-528/ smghanac@yahoo.com
- ★ 케냐: 센터/ 254-726944744/ smoothgoing@gmail.com
-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hidahraza@yahoo.fr
-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포트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lius@intnet.mu
-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web.co.za
요하네스버그/ Ms. Khena Refiloe Truelove/ 27-83-5014853/ emzinikababa@yahoo.com
- ★ 토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로메/ Mr. David Chine/ 228-2-215-551
-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 아메리카 ■

-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regresandoacasa25@yahoo.com.ar
-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301758/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32234424, 55-91-3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errano@terra.com.br
레시페/ 센터/ Recifecenter@click21.com.br
레시페/ Ms. Maria Vasconcelos de oliveira/ 55-81-3326-9048/ mariaoliveira_cultural@click21.com.br
레시페/ Ms. Monica Tereza Nogueira/ 55-81-8742-3431, 55-81-3304-0452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11-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 캐나다:
에드먼턴/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에드먼턴/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sympatico.ca
몬트리올/ Ms. Euchariste Pierre/ 1-514-481-9816/ p_euchariste1@sympatico.ca
몬트리올/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sympatico.ca
오타와/ Mr. Jianbo Wu/ 1-613-829-5668/ jianbowu2002@yahoo.ca
오타와/ Ms. Jean Agnes Cambell/ 1-613-839-2931/ Jean.quanyin@gmail.com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 토론토/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 토론토/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 토론토/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77@yahoo.ca
- 밴쿠버/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 밴쿠버/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1@yahoo.com
산티아고/ Mrs. Millaray Lizana Lizana/ 56-2-4544278/ millaraynoemi@yahoo.com
산티아고/ Mrs. Jacqueline Jeannette Barrientos Salas/ 56-2-3147786/ jacqueline.barrientos.salas@gmail.com
- ★ 콜롬비아: 보고타 센터/ 57-1-2712861/ luzdelsonido@yahoo.com
-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산호세/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 멕시코:
멕시코/ Ms. Sonia Valenzuela/ 52-928-317-8535/ valenzuela_sonia@hotmail.com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xcenter@gmail.com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ffo/ 52-8-18104-1804/ monterreycenter@yahoo.com.mx
-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pastora7iglesia@yahoo.com
- ★ 파나마:
파나마/ 센터/ 507-236-7495
파나마/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mrleone2@yahoo.com
-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1-523684/ ec_py2002@yahoo.com.ar
- ★ 페루:
아레키파/ Mr. Julio Cardenas Pelizzari/ 51-54-453828/ qyarequipa@yahoo.com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 centro@yahoo.com
리마/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리마/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 Mrs. Raul Seugra Prado/ 51-44-221688/ rsp_lrujillo@hotmail.com
- ★ 미국:
* 에리조나: 센터/ 1-602-264-3480
* 에리조나: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ngoaz@hotmail.com
* 아칸사스: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bobjd@cox.net
*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센터/ 1-951-674-7814
로스앤젤레스/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in54@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gmail.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샌디에이고/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샌프란시스코/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샌프란시스코/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464-8066/ Margorffico@yahoo.com
 산호세/ Mr. Loc Petrus/ 1-510-813-2300/ petrul2k4@gmail.com
 * 콜로라도: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i@ureach.com
 * 플로리다: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239-458-2639/ CapeCoralCenter@Gmail.com
 케이프코랄/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moonwater33957@yahoo.com
 올랜도/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smch_orlando@yahoo.com
 * 조지아: Mr. James Collins/ 1-770-294-1189/ georgiacenter@hotmail.com
 * 조지아: Mr. Roddell Pleassants/ 1-678-429-7958
 * 조지아: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 하와이: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 하와이: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 일리노이: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 인디애나: Ms. Josephine Poelnitz/ 1-317-842-8119/ joslepoeb@sbcglobal.net
 * 켄터키:
 프랭크퍼트/ 센터/ kycenter2000@yahoo.com
 프랭크퍼트/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ij.Nguyen@ky.gov
 * 루이지애나: Mr. John L. Fontenot/ 1-504-914-3236/ jlfontenot@hotmail.com
 * 메릴랜드: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 메사추세츠:
 보스턴/ 센터/ 1-978-528-6113/ bostonctr17@yahoo.com
 보스턴/ Ms. Gan Mai-Ky/ 1-508-791-7316
 보스턴/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 미시간: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 미네소타: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mn@yahoo.com
 * 미주리: 클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 뉴멕시코: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nawarskas@comcast.net
 * 뉴저지: 센터/ 1-973-209-1651/ NJCenter@gmail.com
 * 뉴저지: Mr. Hero Zhou/ 1-617-794-8282/ yb_zhou@hotmail.com
 * 뉴저지: Ms. Lynn McGee/ 1-513-377-2375/ lynn.mcgee@yahoo.com
 * 뉴저지: Ms. Bozena Chetnik/ 1-732-986-2907/ bozena_chetnik@yahoo.com
 * 뉴욕:
 뉴욕/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ic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585-256-3961/ dcouch@rochester.rr.com
 *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northcarolinacenter@hotmail.com
 * 오크하임:
 해밀턴/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해밀턴/ Mr. Gilbert Rivera/ 1-513-226-3686/ wisdmeye@aol.com
 * 오클라호마: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yahoo.com
 * 오리건: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포틀랜드/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 펜실베이니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529-3114/ DiepAshleyPa@aol.com
 * 펜실베이니아: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 텍사스: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jdauw@yahoo.com
 오스틴/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ngdean@yahoo.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달라스/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comcast.net
 달라스/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8@yahoo.com
 달라스/ Mr. Jimmy Nguyen/ 1-972-206-2042/ JimmyHNguyen@yahoo.com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휴스턴/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휴스턴/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cuc-le@houston.rr.com
 휴스턴/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yan@houston.rr.com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2049/ lethong@hotmail.com

* 버지니아: 센터/ 1-703-941-0067

버지니아비치/ 센터/ 1-757-461-5531/ liem_le23502@yahoo.com

버지니아비치/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y@hotmail.com

* 워싱턴: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시애틀/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위/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 아시아 ■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 tpe.light@msa.hinet.net

타이베이/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loh@ndmctsg.hk.edu.tw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미아오리/ Mr. Chu, Chen Pel/ 886-37-724726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33-1441

★ 홍콩:

홍콩/ 센터/ 852-27495534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sm_hongkong@yahoo.com

★ 인도: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2655-6741/ shiva@cal.vsnl.net.in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i@yahoo.com

발리/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et.net.id

자카르타/ Mr. Tai Eng Chew/ 62-21-6319061/ cte@envirotec.co.id

자카르타/ Ms. Lie Ik Chin / 62-21-6510715/ herlina@ueil.com

자카르타/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자카르타/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ketut@sinarmas.co.id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말랑/ Mr. Henry Soekianto / 62-341-325-832

메단/ Mrs. Merlinda Sjalf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수라바야/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harry_l@sby.dnet.net.id

요카르타/ Mr. Augustinus Madyana Putra / 62-274-411-701/ tadianingtyas@lycos.com

★ 이스라엘: Mr. Yaron Adar/ yadar@freeuk.com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mth.biglobe.ne.jp

도쿄/ Ms. Yukiko Sugihara/ 81-90-6104-5770/ lotus@sky.plala.or.jp

도쿄/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대한민국:

출판사/ 042-543-9250/ chinghalkpt@yahoo.co.kr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i21@yahoo.co.kr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서울/ 유태인/ 02-795-3927

부산/ 센터/ 051-334-9204~5/ chinghaibusan@hanmail.net

부산/ 송호준/ 051-957-4552

부산/ 황상원/ 051-805-7283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대구/ 김익현/ 053-633-3346

대구/ 한성희/ 053-746-5338

대구/ 차재현/ 053-856-3849

대전/ 센터/ 042-625-4801/ smdaeeon@yahoo.co.kr

대전/ 도봉희/ 042-471-0763/ dbhs44463@yahoo.co.kr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전주/ 신한창/ 063-254-5824

광주/ 센터/ 062-525-7607

광주/ 조명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인천/ 센터/ 032-867-5351/ lightundinchon@yahoo.co.kr

인천/ 이재문/ 032-244-1250

안동/ 김삼태/ 054-821-3043/ smandong@hanmail.net

청옥/ 센터/ 054-673-1399

★ 라오스: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ouk/ 856-21-415-262/ sobophet@yahoo.com

★ 마카오:

마카오/ 센터/ 853-532231/ mcdiVlove@yahoo.com.hk

마카오/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펠라루푸르/ 센터/ 60-3-21453904/ klsmch@yahoo.com

펠라루푸르/ Mr. Phua Kai Liang/ 60-12-307 3002/ klnet23@yahoo.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ch@pd.jaring.my

페낭/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 몽골: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baasandamba@yahoo.com

바기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ssalkss@mptmail.net.mm

★ 네덜: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카트만두/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531643

포카라/ Mr. Bishnu Neupane/ 977-984-60-36423/ neupanebishnu@hotmail.com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917-474-9845/ manilach@hotmail.com

★ 싱가포르: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싱가포르/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1-2412115/ samantha_nbt@zeynet.com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ck66@gmail.com

방콕/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66-2-5914571/ edasnlad@stou.ac.th

치앙마이/ Ms. Siriwan Supatcharnian/ 66-50-332136/ sirwanily@gmail.com

콘캔/ 센터/ 66-43-378112

송크라/ 센터/ 66-74-323694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43-699-12272892/ Chinghai@gmx.at

비엔나/ Mr. Nguyen Van Dinh/ 43-2955-70535

★ 벨기에:

브뤼셀/ Ms. Ann Goorts/ 32-472-670272/ qybelgium@yahoo.com

브뤼셀/ Mr. Ellen De Maesschalk/ 32-486-242248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wwwruslan@yahoo.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yahoo.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czech-center@spojenisbohem.cz

프라하/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Mr.Jussi Pohjolainen/358-40-548-3533/ jussi_pohjolainen@yahoo.com

★ 프랑스: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파리/ 센터/ 33-1-4300-6282

파리/ Ms. Lancelot Isabelle/33-1-7069-3210/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독일: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Grigoril.Guinzboung@gmx.de

뒤스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203-4846374/ ngoc-thao.nguyen@gmx.de;dusseldorfcoe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원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원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source8@yahoo.de

★ 그리스:

아테네/ Ms.Vicky Chrisikou/ 30-210-8022009, 30-6944-470094/ luckychrisikou@yahoo.gr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kamlung cheng/ 31-647838638/kamlung27@hotmail.com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gmail.com

부다페스트/ Mr. Lehel Csaba/ 36-96-2400-259/ clehel@gmail.com

부다페스트/ Gabor Soha/ 36-20-221-5040/ gabor.soha@gmail.com

★ 이탈리아:

페스카라/ Bettina ADANK/ 39-085-454-9184/ bettina.adank@fastwebnet.it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dublinquanyin@yahoo.co.uk

★ 노르웨이:

오슬로/ Ms. Marte Hagen/47-64978762, 47-92829803/ marte.hagen@gmail.com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91-4874953/ gingal@wp.pl

바르샤바/ Ms. Elzbieta Ukleja/ 48-22-8367814/ elzbieta_q1@yahoo.com

★ 포르투갈: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 루마니아: 부차레스트/ 센터/ bucharestqy@yahoo.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 슬로베니아:

루블랴나/ 센터/ 386-1-5182542/ quanyin@siol.net

루블랴나/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janez.pavlovic@siol.net

마리보/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rast05alfonz@yahoo.com

★ 스페인:

마드리드/ Ms. Lidia Kong/34-91-547-0366

마드리드/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osilvachile@yahoo.es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발렌시아/ Mr. Yu Xi-Qi/ 34-96-3301778/ valenciachinghai@yahoo.es

★ 스웨덴:

앵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yahoo.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smchsweden@yahoo.se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제네바/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klein@tiscali.ch

★ 영국 연방:

* 잉글랜드:

임스워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ocean@hotmail.com

런던/ 센터/ 44-2088-419866/ prii@atters19.freeserve.co.uk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런던/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스트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866489/ j.weller4@ntlworld.com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 오세아니아 ■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ide@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_en@yahoo.com.au

브리즈번/ Mr. Gerry Blisshop/ 61-7-3901-6235

브리즈번/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_briscentre@yahoo.com.au

브리즈번/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136@hotmail.com

캔버라/ Mr. Hoang Khanh / 61-2-6259-1993/ smcanberra@hotmail.com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멜버른/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멜버른/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rme@yahoo.com

멜버른/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netspace.net.au

퍼스/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net.net.au

퍼스/ Mr. Ly Van Tri/ 61-8-9242-2848

시드니/ Mr. Eino Laidsaar/ 61-2-65504455/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시드니/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태즈메이니아/ Mr. Ramond Dix on/ 61-3-62314420/ ray_jule@bigpond.net.au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 649-277-9285/ takahide@extra.co.nz

오클랜드/ Mr. Peter Morrin/ 64-9-579-2452/ ptr@ihug.co.nz

오클랜드/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yahoo.com.au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211399934/ hamnzcont@yahoo.co.nz

넵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 전세계 연락처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연락처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 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cp/index.htm)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비디오테이프

이메일: TV@Godsdirectcontact.org

SM 경서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ail.sm-cj.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온라인 천상의 상점

<http://www.thecelestialshop.com>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http://www.smchbooks.com/>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042-543-9250

팩스: 042-543-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ri21@yahoo.co.kr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동,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천상의 보석

‘완전한 자’에서

얻은 깨달음

아선 사형/ 포모사 (원문 중국어)

“우리는 친구의에 있어서 진선미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
래야 완전한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빛이라는 것을 기
억하십시오.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고 이 물질적인 육체의 차원에 머물지 마십시오. 파도
를 뛰어넘어야 그 속의 고요한 바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어떤 파도도 없고,
장애도,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칭하이 무상사

위 감로법어는 제11대 천상의 보석 ‘완전한 자’가 만들어지기 10년 전인 1995년에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이 지혜의 말씀을 주의 깊게 되새기고 있을 때 문득 ‘완전한 자’가 바로 이
감로법어에 근거해 디자인되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문장 하나하나가 ‘완전한 자’의 각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마치 스승님께서 시공을 초월해 이미 10년 전에 이 천상의 보석 컬렉션을 설명하셨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완전한 자’의 삼각형 모양은 진선미의 품성을 상징하며, 밀려드는 파도처럼 보이는 조그마한 자수정 조각들
로 꾸며진 테두리는 물질세계의 격랑을 상징한다. 이 파도를 넘으면 금으로 된 중심 부분이 나오는데, 그 표면
은 빛의 바다 위에 잔물결이 이는 듯한 모양으로 세공돼 있어 우리의 빛나는 본성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삼각형은 딱딱한 직선이 아니라 약간 둥그스름한데, 이는 우리 수행자들이 원칙을
지키면서도 완고한 태도로 규칙에만 집착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완전한 자’ 컬렉션의 목걸이를 보면, 고리에 걸린 황금 삼각형과 자수정 삼각형은 그 개수가 같지만 황금 삼
각형의 크기가 더 크다. 이는 수행자가 내면의 영적 세계에 집중하면서 물질세계에서의 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
되 그 중심은 수행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이 ‘완전한 자’ 컬렉션을 통해서 나는 내면의 자아를 통해서만 물질적인 환상을 돌파해
빛나는 본성을 찾을 수 있으며, 강함과 부드러움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내면의 진
아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동시에 세속적인 의무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진선미를 갖춘 수행자라야 ‘완전
한 자’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책

신과 인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통한 고찰

(영문판, 중문판)

이 특별한 책에는 스승님이 여러 장소에서 해석해 주신 열세 편의 성경 이야기가 담겨 있다. 성경 속의 이야기는 어떤 영적 메시지를 드러내는가? 이러한 메시지는 현대인의 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책에서 칭하이 무상사는 이 질문들에 대해 깊이 있는 해답을 제시하시는 한편 궁극적인 해탈의 길인 관음법문을 소개해 세상 사람들이 잃어버린 낙원으로 되돌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칭하이 무상사는 말씀하신다.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에는 우리가 배우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많은 게시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과일을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규칙의 문제이자 상호 존중, 상호 협조, 예고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 ‘잃어버린 낙원’에 이어 ‘노아 이야기(제2장)’, ‘롯 이야기(제4장)’, ‘모세 이야기(제6장)’와 같은 많은 특별한 성경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은 신의 자녀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 우주적 사랑과 평화, 조화로움이라는 우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어쩔 수 없이 자멸의 길로 떨어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자연 재난과 인재(人災)를 피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과 롯, 모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등과 같은 인물들은 모두 겸손하게 신의 뜻에 순종했으며, 이를 위해 세속적인 재산을 버리고 사랑받는 자녀들까지 버릴 정도였다. 그 결과 그들은 원래 희생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귀중한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칭하이 무상사의 심오한 지혜를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며, 이 책이 인류에 대한 신의 영원한 사랑을 일깨워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http://www.thecelestialshop.com>을 방문하시거나 다음 주소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Fax: (886) 2-87870873
E-mail: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대만 우체국 송금계좌 번호: 19259438(모포사 내 주문시)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문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